일념, 평화통일 길

박재규 著

비매품
03340
9788884213951
ISBN 978-89-8421-395-1

경남대학교출판부

지난 45년 간 걸어온 평화통일의 길을 돌아보며

- 평화통일 연구의 시작과 함께 토대 마련에 진력하다.
- 남북 화해 · 협력의 선봉에 나서다.
- 남북 교류 및 민간 외교 활동에 전념하다.
-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위한 민간외교 지속하다.

경남대학교출판부

약 력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지난 45년 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통일을 향한 일념으로 한 길을 걸어왔다. 1967년 미국 F.D.U.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교(CCNY)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74년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통일 문제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1972년 경남대 부설 통한문제연구소(현재 극동문제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경남대 교수(1973~198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73~1986), 경남대 총장(1986~1999, 2003~현재)을 비롯해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1997~1999),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2005~2009),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2005~2009), 동북아대학총장협회 이사장(2003~2010) 등으로 재직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왔다.

대표 저서로는 『북한외교론』(1977),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1997),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2011), 『새로운 통일 이야기』(2017) 외에도 다수가 있다.

특히, 박재규 총장은 제26대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 재직 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앞장섰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또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2006~2013),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2009~2011), 통일준비위원회 자문위원(2014~2017) 등으로 일하며 우리 사회 원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국론결집을 위한 사회통합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우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청조근정 훈장(2002)을 받았고, 미국 F.D.U. Global Understanding상(2001), 제1회 한반도평화상(2004), 프랑스 시라크재단 분쟁방지 심사위원특별상(2009)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F.D.U., 러시아 극동국립대, 일본 가나가와대, 대만 중국문화대, 일본 소카대 등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념, 평화 통일 길

박재규 著

경남대학교출판부

지난 45년간 걸어온 평화통일의 길을 돌아보며

한민족의 염원이었던 광복을 맞이하기 1년여 전 일본에서 태어난 나에게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은 어쩌면 하늘이 준 숙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국제정치학자가 되기 위해 선택한 미국 유학 시절, Peter Wiles 교수와 John Herz 교수를 만난 것은 한국인이었던 내가 북한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1972년 9월 1일, 북한·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경남대 통한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6개월 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로 개칭하고, 2대 소장에 취임했다. 이 때부터 우리의 문제이지만 국제적 냉전체제와 이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았던 북한·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농군의 심정으로 북한·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핵확산, 동남아, 해양 문제 등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국내외에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며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연구자들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국제적인 냉전체제가 종말로 향하던 1986년, 당시 우리와 수교도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을 방문해 한국 대학생들의 '공산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합의하고 추진했다. 1989년에도 수교 이전이었던 소련에 들어가 '공산권 체험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동방학연구소와의 MOU 체결 등을 성사시켰다. 주위에서 무모하다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 과정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믿으며 정면 돌파했다.

냉전체제 해체 후 소련, 중국 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으며, 198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한학과를 경남대 행정대학원 내에 개설했다. 이를 모태로 1998년에는 국내 최초의 북한 전문 대학원인 경남대 북한대학원을 개설했다. 이는 다시 2004년 국내 최초의 북한 전문 대학원대학교인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승격·독립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북한학'을 제대로 된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었다.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출신들이 현재 정·관·학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개척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998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해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이 모든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평화통일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며 지칠줄 모르고 뛰어다녔다. 뿐만 아니라 경남대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로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던 소위 '데라우치 문고'를 국내로 반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이러한 발걸음이 인정받은 것인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던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나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던 야당(한나라당)을 비롯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화해·협력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밤을 낮삼아 일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고, 평양 순안공항에 발걸음을 내디뎠던 순간의 감동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14일 있었던 만찬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문제, 경의선 연결 문제 등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2000년 6월 15일에는 당시 북한의 2인자이자 환송 오찬 주최자였던 조명록 총정치국장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북한에서 돌아오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전직 대통령과 3부 요인, 통일 고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원로들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해외의 많은 고위 인사들이 찾아왔으며, 이들에게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아 1차 회담부터 4차 회담까지를 이끌었다. 북측의 전금진 단장과 때로는 웃으며 협의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벌여 회담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립과 대결로 점철

됐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 개최 문제에 북측 대표단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와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오찬과 면담까지 지연시키면서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밤을 새워 김용순 대남비서와 함께 기차를 타고 자강도까지 달려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그와 조찬을 함께 하며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등에 합의하고 한림공원에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전금진 북측 단장과 함께 심기도 했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의 기본이 되는 이른바 4대 경협합의서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한 동안 남북정상회담과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치르며 남북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나름 노력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념은 변함이 없었다. 2002년 KBS 교향악단 평양공연에 고문으로 동행 방북해 북한의 김용순 대남비서,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전금진 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등을 만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2004년에는 경남대 통일관 개관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리종혁 부위원장이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과 함께 서울에 다녀가기도 했다. 2005년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합의하는데 일조했으며, 2006년 5월에는 동북아 지역의 대학 총장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해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한 달 뒤에 북한 조국통일연구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간의 학술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냉전기의 쓰라린 상처 가운데 하나였던 동백림 사건의 피해자인 작곡가 故윤이상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윤이상평화재단을 설립하고, 평양음악회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윤 선생의 미망인인 이수자 여사가 4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왔다. 평화통일의 길을 향한 일념의 여정을 해외에서도 인정했는지 2001년 미국 F.D.U.가 수여하는 글로벌 언더스탠딩 상을 수상했고, 2009년에는 프랑스판 평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라크재단의 분쟁방지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난 45년 동안 나는 평화통일을 향한 일념으로 한 길을 걸어온 외골수였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북한·통일문제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특히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매우 귀중한 경험을 적지 않게 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나 개인의 경험을 넘어 다른 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사진을 중심으로 회고하는 과정에서 주마등 같이 수 없는 사연과 추억이 떠올라 망설여지기도 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이 지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미래가 우려되는 등 안타까운 심정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노력에는 후회가 없으며, 후배 북한 연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으며 이 책을 발간한다. 특히, 재임 중에 대북 정책 추진과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한 통일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여생도 나에게는 숙명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향한 길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소임으로 여기고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오랜 기간 평화통일을 향한 나의 여정에 많은 도움을 준 국내외 인사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많은 분들의 지원·협력 덕분에 일념을 갖고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았던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2017년 8월 삼청동에서

목 차

Ⅰ. 평화통일 연구의 시작과 함께 토대 마련에 진력하다 ····· P. 1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북한 및 동북아 연구의 메카 ····· P. 14

1970년대 공산권·북한·동북아 관련 본격 연구

-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 첫 국제학술회의 개최 ····· P. 17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내 최초의 국제학술회의 ····· P. 18

1980년대 국제적으로 학술 교류·연구의 다각화와 저변 확대 ····· P. 22

- 수교 이전인 1986년 중국 방문: '공산권 체험 교육' 시작 ····· P. 24
- 수교 이전인 1989년 소련 방문: '공산권 체험 교육' 확대 ····· P. 26
- 냉전체제 해체와 마르크시즘 국제학술회의 개최 ····· P. 28

1990년대 국제 교류 강화 및 교육 역량 연계·확대:

탈냉전 역사의 변화 대응 위한 국제교류 강화 및 연구 심화 ····· P. 30

- 중·소와의 관계 중심 학술회의 개최
- 미·일·중·러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안보 및 통일문제 연구 본격화
- 데라우치 문고 반환 ····· P. 38

북한 연구와 교육을 접목한 전문 인재 양성 ····· P. 44

- 경남대 북한대학원 개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북한 방문: 남북 학술 교류 선도 ····· P. 46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술 교류

Ⅱ. 남북 화해·협력의 선봉에 나서다 ····· P. 54

1. 제26대 통일부 장관 임명 ····· P. 56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북정책 등 논의 ····· P. 58
   - 국무회의, 의회 활동 등 대북정책 조율 ····· P. 60
   - 대북정책 설명과 의견 수렴 ····· P. 66

2. 최초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 P. 68
   -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 P. 70
   - 새로운 역사인 남북정상회담 준비 ····· P. 72
   - 평화와 민족화해의 첫 길: 남북정상회담 개최 ····· P. 74
   - 2000.6.14 만찬 ····· P. 78
   - 「6.15 공동선언」합의 ····· P. 80
   - 2000.6.15 환송 오찬 ····· P. 82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 P. 84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 P. 88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 P. 90

3. 남북관계 발전 위한 협상의 현장 ····· P. 96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의선 연결 문제 논의 시작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합의 ····· P. 102
   - 김정일 위원장과 자강도 면담 ····· P. 106
   - 김용순 북한 대남비서 서울 방문: 북한 경제시찰단 방한 합의 ····· P. 110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추위 설치 합의 ····· P. 112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4대 경협합의서 체결 ····· P. 118
- '화살과 꽃다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단상 ····· P. 122

Ⅲ. 남북 교류 및 민간 외교 활동에 전념하다 ····· P. 126

- KBS 교향악단 평양공연(2002.9.16~22) ····· P. 128
- '6.15 통일관' 개관 및 북한대학원대학교 설립(2004.11) ····· P. 132
-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2005.6.14~17, 평양) ····· P. 138
- 동북아대학총장협회 국제심포지움(2006.5.23, 개성공단) ····· P. 144
- 윤이상평화재단 평양음악회(2006.10.17~21), 서울음악회(2007.11.3) ····· P. 148
- 김대중 전 대통령 특강(2007.11.27) ····· P. 152
- 미국 F.D.U. 글로벌 언더스탠딩 상(2001.6.1) ····· P. 154
- Tiger Woods와의 평화로운 라운딩(2004.11.13) ····· P. 156
- 시라크재단 분쟁방지 특별상: 프랑스판 평화상(2009.11.6, 파리) ····· P. 160

Ⅳ.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위한 민간외교 지속하다 ····· P. 166

-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 해외 정상 및 통일·외교·안보분야 ····· P. 168
- Carlos Slim 텔맥스텔레콤 회장, Olegario Vazquez Rana 세계사격연맹 회장(IOC 위원)과 함께 ····· P. 178
-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의 학술 교류·협력 ····· P. 184
- Korea Global Forum(한반도 국제포럼) 개최 ····· P. 188

사진으로 본 지난 세월 ····· P. 194

I.

평화통일 연구의 시작과 함께 토대 마련에 진력하다

북한 및 동북아 연구의 메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1972.9.1)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미국 뉴욕시립대(CCNY) 대학원에서 수강했던 <사회주의 경제학> 강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8년 런던 정경대(LSE)에서 교환교수로 와있던 Peter Wiles 교수의 <소련경제> 강의를 수강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세계적인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Wiles 교수는 '반드시 북한에 대한 학문적·현실적 요구가 증폭될 것'이라며 한국인으로서 북한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뉴욕시립대 지도교수였던 John H. Herz 교수는 국제정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2년 9월 1일, 당시의 남북관계와 시대적 상황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변의 우려가 많았지만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남대학교 통한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1973년 3월 10일, 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2대 소장에 취임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소식 장면(1972.9.1)

1970년대

공산권 · 북한 · 동북아 관련 본격 연구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주변 강대국' 주제 제1회 국제학술회의 개최로 한반도 문제 본격 연구 시작

이 회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미국에서 활동하던 북한과 동북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처음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회의를 계기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 문제 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첫 한반도 문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73.4.20~21, 워싱턴

▲ 학술회의에 참석했던 재미 한국 학자 · 전문가인 김영진, 조순승, 김일평, 고병철, 이정식, 이채진 교수 등과 함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내 최초의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1974.1.21~24, 서울

▲ 민관식 문교부 장관, 김경원 교수 등
학술회의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 스승과 제자가 함께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학술회의가 소개된 영문 잡지의 표지

▲ 국내 최초로 북한, 한반도, 동북아 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1974.1.2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뉴욕시립대 정치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 김종필 총리 주최 축하 리셉션

냉전시대의 국제 환경에서 북한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이 회의는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북아 지역은 물론,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분석 · 평가하는 첫 국내 학술연구 사업이었다. 참석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뉴욕시립대 지도교수였던 John H. Herz 교수는 국외 참가 교수를 대표해 학술회의를 마치는 인사말에서 ‘헤어질 때보다 많이 발전해서 좋다’는 격려로 “Well-done. Jaekyu, Now on you call me John”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 제3회 국제학술회의(1976.10.21~23, 서울)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1회 국제학술회의와 1974년 서울에서 주최한 제2회 국제학술회의를 발판으로 1976년 동남아 문제를 주제로 제3회 국제학술회의, 1979년 핵확산 문제를 주제로 제4회 국제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동남아 문제에 관한 제3회 국제학술회의는 당시까지 동남아 지역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핵확산 문제에 관한 제4회 국제학술회의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포기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미래를 내다보며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 핵확산 문제를 주제로 제4회 국제학술회의 개최(1979.1.22~24, 서울)

1980년대

국제적인 학술 교류 · 연구의 다각화와 저변 확대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 동북아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이의 선도적인 담론을 주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 계기 마련과
대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 소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5회 국제학술회의 개최(1982.8.24~25, 마산)

▲ Wanandi 소장, Soesastro 실장 등 제3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 참석자들(1981,발리)

▲ 제4회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1984, 서울)

1982년에는 소련과 동아시아 문제를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당시까지 국내에서 소련 문제를 직접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5회 국제학술회의는 공산권 연구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를 5차례 개최했다. 이 학술회의에는 양국에서 학자 · 전문가뿐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해 당시의 국제 질서 및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제3세계 국가를 대표하는 비동맹회의 의장국으로서, 북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5차례에 걸친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에서 정치 · 외교적 사안보다는 경제적 사안을 중심으로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섰다. 한국-인도네시아 학술회의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ASEAN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개선 ·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에도 갈등이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비롯한 해양문제를 주제로 1984년에 미국 하와이대학 해양법연구소와 함께 아시아 해양법 국제회의를 열기도 했다.

▼ 제2차 해양법 국제회의(1984.7.3~6, 서울)에서 박춘호 교수, 지종일 교수 등과 함께

수교 이전인 1986년 중국 방문

‘공산권 체험 교육’ 시작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밑거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부 초기부터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는 민주화 · 자유화 바람과 함께 이념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올바른 현실 인식을 돕기 위해 이들이 중국, 소련을 방문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태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1986년 9월 중국 정부와 일본 무역회사 협조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체험 교육’을 위한 한국 대학생과 교수들을 경남대가 선발하고, 교육지원은 중국이 하도록 합의했다. 관련 비용은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1986년 가을부터 시작된 ‘체험 교육’이 2년간 확대되면서 1988년부터는 한국 대학들이 각자 중국 대학들과 직접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교수 · 학생들의 교류를 시작했다. 우리 대학들이 중국과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 중국 정부 관계자와 만리장성에 앉아

▲ 중국 정부 및 일본 무역회사 관계자들과 만리장성에서

▲ 만리장성 표지판을 배경으로

▲ 1986년 시작된 중국과의 교류는 1993년 중국 인민대학과 경남대학이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경남대가 수교 이전 처음으로 중국 체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중국 인민대학 등 유수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국내 학계 등 전문가들에게 매우 신선한 자극이 됐다. 중국과의 학술 교류 및 한반도 문제 연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수교 이전인 1989년 소련 방문
'공산권 체험 교육' 확대

1988년 민주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세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올림픽 직후 노태우 정부의 허가를 받고, 1989년 2월 소련 정부 및 소련 동방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소련 동방학연구소는 상호 학술교류와 한국 학생 · 교수들의 '소련 체험 교육'을 지원 · 시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에 이어 소련에서도 공산권 체험 교육이 시작되면서 학생 · 교수들에게는 산 교육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활동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 모스크바 광장에서

▲ Sadovnichy 모스크바국립대 총장과 함께

▲ 블라디보스톡 극동국립대 부총장과 MOU 교환

▲ 반찬코 하바로브스크시 시장과 함께

▲ 소련 동방학연구소 Kapitsa 소장(전 소련 외무차관)과 MOU 교환

▲ 소련 사회과학원의 Arbatov 박사와 함께

▲ 하바로브스크 교육대 Romanov 총장과 함께

중국 체험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1989년 여름에 시작된 교수 · 학생들의 소련 체험 교육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면서 빠르게 확대됐다. 1년 후에는 학생 · 교수뿐만 아니라 경제 ·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육에 참여했다. 그리고 자비 부담으로 '방문과 체험 교육'이 소련에서 동구권 국가들로 확대되면서 '공산권 국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공적 체험 교육'으로 평가받았다.

수교 전 경남대가 시작한 공산권 체험 교육은 훗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수교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 전이라 '북한 외교관들과 경제 대표단들의 심리전'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때도 많았다.

냉전체제 해체와 마르크시즘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9.10.25~27, 서울

사회주의권이 쇠퇴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등
국제질서에서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 Wallerstein 교수 부부와 함께

▲ Wallerstein 교수, Kuczynski 교수

1989년 10월,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를 주제로 마르크시즘을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물결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요원했던 시절이었다.

이 국제학술회의에는 Immanuel Wallerstein, Bob Jessob, James O'Conner, Jurgen Kuczynski, Fredric R. Jameson, Alain Lipietz, Elmar Altvater 등을 비롯해 9개국에서 세계적인 학자 90여 명이 초청돼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소련의 개혁·개방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마르크시즘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세간의 큰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탈냉전 역사적 변화 대응 위한 국제교류 강화 및 교육 역량 연계 · 확대, 연구 심화

탈냉전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직접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 등 강대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했다.

▲ 미국 하버드대학교 페어뱅크센터,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함께 1992년 3월 26일 'Prospects for China in the 1990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중국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Dwight H. Perkins, Ezra F. Vogel, James L. Watson, Roderick MacFarquhar 등의 하버드대 교수들이 참석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1990년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 · 소 국제학술회의(1991.6, 소련), '신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주제 개소 20주년 국제학술회의(1992.10, 서울), UNESCO 공동 주최 학술회의(1993.9, 서울), '동북아 신질서와 정치 · 경제 협력' 주제 국제학술회의(1994.9, 중국), '한국 · 러시아 · 중국의 발전 및 상호 협력' 주제 국제학술회의(1997.3, 서울),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방안' 주제 한중 국제학술회의(1997.7, 중국) 등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1995년 10월 미국 포틀랜드주립대와 함께 학술지인 *Asian Perspective*를 공동 출판하기 시작했으며, 1996년과 1997년 2년 연속으로 *Asian Perspective*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사회과학 분야 우수 국제 학술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인 미국 존스홉킨스대 SAIS와 *Asian Perspective*를 공동 출간할 예정이다.

▲ 소련 동방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991년 6월 3~4일 모스크바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G. Ghufrin, G.K. Shirokov, Alexander V. Voronstsov, V. Yashkin, A. Maximov 등 소련과 한국의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97년 3월 24일 서울에서 '한국 · 러시아 · 중국의 발전 및 상호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러시아의 미국-캐나다연구소에서 S.M. Rogov 소장, M.G. Nossov 부소장, 중국에서 순리앙 국제무역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한 · 러관계 및 한 · 중 관계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Donald P. Gregg 주한 미국대사(가운데 왼쪽), Aleksandr Panov 주한 러시아대사(가운데 오른쪽), 이만섭 국회의장(오른쪽 끝)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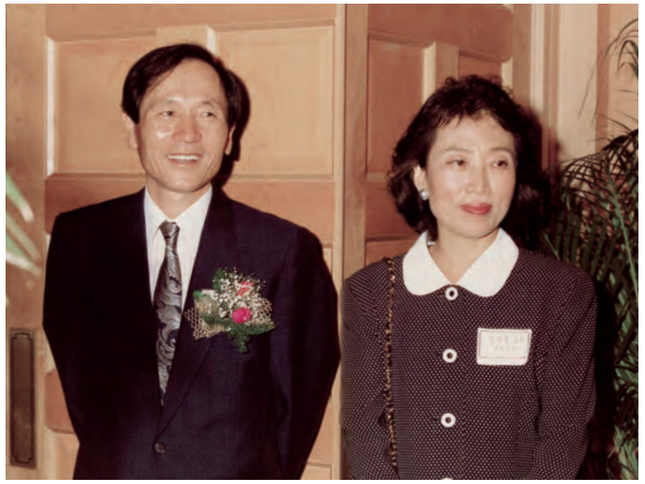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1992년 9월 4일 서울에서 '탈냉전기 세계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국 주재 미국 · 러시아 대사(大使) 초청 특별강연과 만찬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Gregg 주한 미국대사와 Panov 주한 러시아 대사가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련의 붕괴로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정의했던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직후였기 때문에 의미있는 장(場)이었다. 소련의 개혁 · 개방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함께 한 · 소 수교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변화 속에서 미 · 소 대사가 함께 하는 모임이어서 역사의 변화를 실감케했다.

특히, 1989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당시 소련 외교부 관리였던 Panov 대사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난 바 있어, 그의 주한 러시아 대사 부임은 개인적으로도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 20주년 기념인사 하는 모습

▲ Gregg 대사(왼쪽), Panov 대사, 조완규 교육부 장관과 함께

▼ 부인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 Gregg 대사와 대화하는 모습

▲ Ladner 아메리칸대학 총장, Gallucci 전 북핵특사와 함께

▲ Gregg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경남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미국 아메리칸대학과 함께 1996년 5월 22~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21세기를 위한 한반도 통일 전략)'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Benjamin M. Ladner 미국 아메리칸대학 총장과 Robert L. Gallucci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Donald P. Gregg 미국 Korea소사이어티 회장(전 주한 미국대사), Valery Denisov 러시아 외무부 부국장(전 북한주재 러시아대사)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일 문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개최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 제기되던 1996년 10월 24~2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 · 미 안보연구회와 함께 서울에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한 · 미 안보연구회 공동의장인 Robert W. Sennewald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류병현 전 주미대사, 백선엽 장군, 이양호 국방부 장관, John H. Tilelli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담당했던 전 · 현직 고위 인사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 Sennewald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 손주환 서울신문 사장, Sennewald 전 사령관,
Tilelli 사령관, 백선엽 장군과 함께(왼쪽부터)

▲ 조선일보가 마련한 대담에서 Perry 국방장관과 함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25주년 및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설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1997년 9월 4~5일 서울에서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선택' 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Perry 전 장관은 회의 기조연설과 언론사 특별대담 등을 통해 Clinton 행정부가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격(Surgical Strike)'을 계획했었다는 소문과 관련해 "한 때 미국 국방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994년 6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필요로 하는 3가지 군사적 대안을 마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Clinton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려는 순간 방북 중이던 Carter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동결 약속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데라우치 문고 반환(1996년)

▲ 다까야마 학장, 김영광 의원, 다케오 중의원과 함께(왼쪽부터)

▲ 김영광 의원과 각서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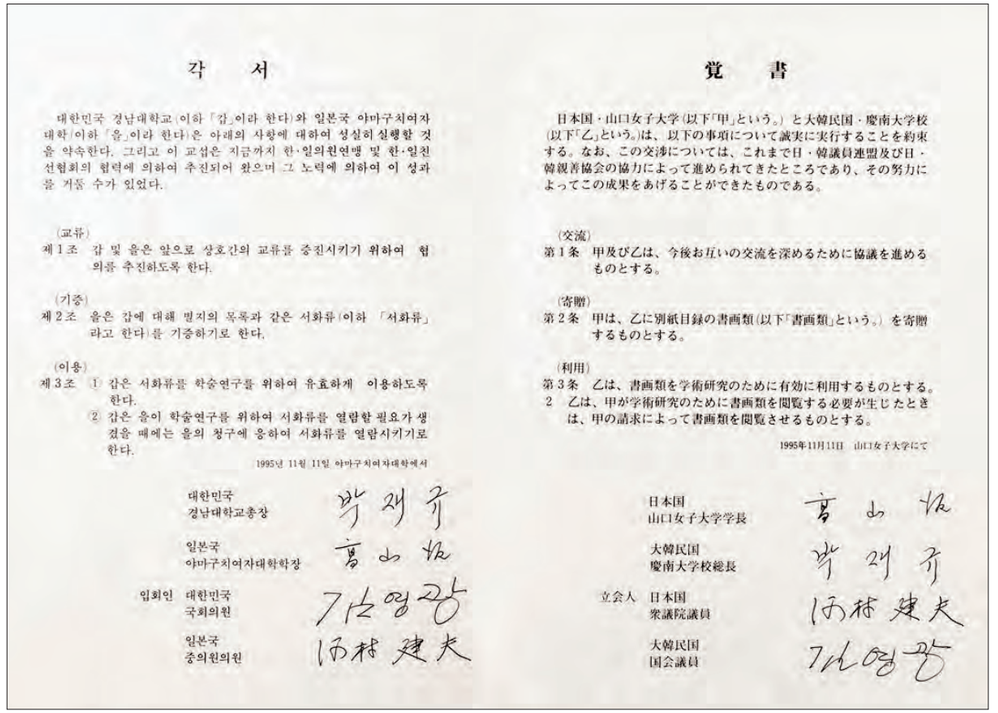
1996년 경남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찾아 환수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일본의 도쿄, 교토, 고베, 희메지 등 여러 곳을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성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사업을 준비한 지 1년여가 지난 1995년 초,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우연히 김영광 의원을 만나 '데라우치 문고'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에 데라우치 문고를 소장하고 있던 야마구치(山口)여자대학의 다까야마 오사무(高山治) 학장, 김영광 의원,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중의원, 임창순 문화재 위원장 등의 협조를 받아 1995년 11월 11일 '데라우치 문고 반환' 서명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데라우치 문고 반환 서명 직전 언론에서 '강탈'이냐, '수집'이냐가 보도되면서 문고를 반환받기까지 큰 홍역을 치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라우치 문고의 반환에 동의해 주신 데라우치 가족들과 여러 가지 걸림돌을 해결해 주신 다까야마 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임창순 문화재 위원장과 함께 데라우치 문고를 들고 나오는 모습

▲ 네 사람의 서명이 담긴 각서를 다까야마 학장과 교환

▼ 각서



각　서

대한민국 경남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일본국 야마구치여자대학(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 교섭은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 및 한·일친선협회의 협력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그 노력에 의하여 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교류)
제1조 갑 및 을은 앞으로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의를 추진하도록 한다.

(기증)
제2조 을은 갑에 대해 별지의 목록과 같은 서화류(이하 「서화류」라고 한다)를 기증하기로 한다.

(이용)
제3조 ① 갑은 서화류를 학술연구를 위하여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서화류를 열람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을의 청구에 응하여 서화류를 열람시키기로 한다.

1995년 11월 11일 야마구치여자대학에서

대한민국 경남대학교총장
일본국 야마구치여자대학학장
입회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본국 중의원의원

覚　書

日本国・山口女子大学(以下「甲」という。)と大韓民国・慶南大学校(以下「乙」という。)は、以下の事項について誠実に実行することを約束する。なお、この交渉については、これまで日・韓議員連盟及び日・韓親善協会の協力によって進められてきたところであり、その努力によってこの成果をあげることができたも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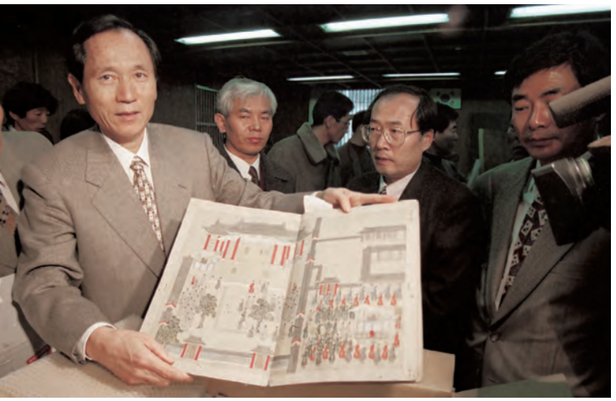
(交流)
第1条 甲及び乙は、今後お互いの交流を深めるために協議を進めるものとする。

(寄贈)
第2条 甲は、乙に別紙目録の書画類(以下「書画類」という。)を寄贈するものとする。

(利用)
第3条 乙は、書画類を学術研究のために有効に利用するものとする。
2 乙は、甲が学術研究のために書画類を閲覧する必要が生じたときは、甲の請求によって書画類を閲覧させるものとする。

1995年11月11日 山口女子大学にて

日本国 山口女子大学学長
大韓民国 慶南大学校総長
立会人 日本国 衆議院議員
大韓民国 国会議員



▲ 한국에서 처음으로 데라우치 문고 공개

▲ 데라우치 문고 서울특별전 테이프 커팅

▲ 데라우치 문고 특별전시실 현판식

야마구치시 출신으로 초대 조선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씨는 일본 · 한국 · 중국의 역사문화에 관심이 깊어 관계문헌을 수집했다.

그리고 1957년 데라우치가는 선친의 뜻에 따라 1922년 설립한 '데라우치 문고'를 야마구치여자단기대학(1975년 야마구치여자대학으로, 1996년 야마구치현립대학으로 변경)에 기증했다.

야마구치여자대학은 1995년 11월 11일 데라우치 문고 조선 관계문헌 98종 135책 1축(1,995점)을 경남대학교에 기증했다.

▲ 경남대 개교 50주년 기념 데라우치 문고 특별전 테이프 커팅

1996년 4월 27일 마산에서 경남대학과 야마구치현립대학은 새로운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과 함께 데라우치 문고 특별전시실의 개관식을 거행했다.

이 행사에는 귀중한 우리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영광 의원, 가와무라 중의원, 다까야마 학장, 임창순 문화재 위원장과 경남대 및 야마구치현립대학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TV 방송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까야마 학장은 "귀여운 딸을 시집보낸 것처럼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했는데, 너무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에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매우 기뻤다"고 소감을 말했다.

▲ 김영광 의원, 가와무라 중의원, 이시야마 회장, 다까야마 학장, 김인규 마산시장 등과 함께

▲ 경남대 개교 60주년 및 데라우치 문고 반환 10주년을 기념해 예술의전당과 2006년 4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시 · 서 · 화에 깃든 조선의 마음'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의 일환으로 2006년 5월 13일 서울서예박물관 문화사랑방에서 '경남대 박물관 소장 데라우치 문고 소장유물의 새로운 가치 평가'를 주제로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데라우치 문고는 2010년 문고 전체가 경상남도문화재로 지정됐으며, 데라우치 문고 가운데 '기원첩'은 우리나라 보물 1682호로 지정됐다.

▲ 특별문고실 앞에서 다까야마 학장과 함께

▲ 기원첩 보물 지정 및 데라우치 문고 경상남도문화재 지정 특별전

▲ '돌아온 문화재 총서 2: 고국으로 돌아온 데라우치 문고' 특별전 테이프 커팅

▲ 감사패를 받은 뒤 다까야마 학장, 안휘준 이사장과 함께

▲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인사말을 하는 다까야마 학장

2014년 12월 서울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안휘준 이사장)이 소중한 문화재 '데라우치 문고'의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책자들을 발간하고 특별 강연회와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특별초청된 야마구치현립대 다까야마 학장과 함께 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다까야마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데라우치 문고 반환 후 대학 주변에 일어난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강경하게 반대했던 한 선생이 찾아와서 "데라우치 문고를 기증했는데, 경남대학교는 무엇을 기증해 주었습니까? 한쪽에서만 기증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다까야마 학장은 "아니요, 정말 멋진 것을 기증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게 무엇입니까?"라는 반문이 나왔고, 다까야마 학장은 "우정이예요"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다까야마 학장은 "그 후 언제나 따스한 우정으로 대해주신 박재규 총장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리고 경남대학교에 기증한 것은 데라우치 문고를 위해서도, 야마구치대학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학술 · 문화 교류라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신뢰가 축적될 때 상호 어려운 역사 · 영토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라우치 문고의 반환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북한 연구와 교육을 접목한 전문 인재 양성

경남대 북한대학원 개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평화통일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북한학과를 행정대학원 내에 개설해 북한·통일 관련 전문교육을 본격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8년에는 평화통일과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해 국내 최초의 북한 전문대학원인 '경남대 북한대학원'을 개원해 전문가를 양성했다. 북한 관련 연구와 교육을 접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실질적인 질적 제고를 가져오게 됐다.

2004년 경남대 북한대학원을 국내 최초의 북한 전문 대학원대학교인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승격·독립시켰으며,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시절부터 지금까지 석사 444명, 박사 102명, 최고위과정 161명 및 통일미래최고위과정(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 포함) 1,048명 등 총 1,755명의 북한전문가를 배출해 북한·통일 관련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 경남대 북한대학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1998.5.28~29, 서울)

▼ 1999년도 국제학술회의 (1999.5.27~28,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소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997.5.22~23, 서울)

북한 방문(1998.9.26~10.3): 남북 학술교류 선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술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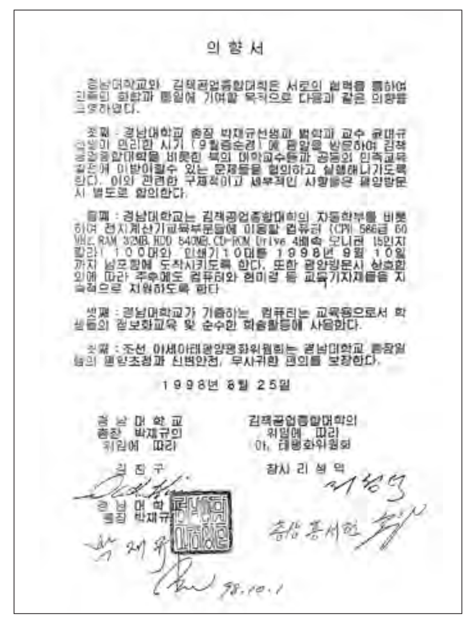
▲ 김책공업종합대학 홍서헌 총장과 협력 의향서 체결

▲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홍서헌 총장 등과 함께 둘러보는 모습

▲ 컴퓨터 실습을 하는 김책공대생

▲ 김책공대 외국어 강의실을 참관

▲ 김책공대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의 향 서

경남대학교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향을 표명하였다.

첫째 :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선생과 법학과 교수 김대규선생이 편리한 시기 (9월중순경)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북의 대학교수들과 공동의 민족교육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행해나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평양방문시 별도로 합의한다.

둘째 : 경남대학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자동화학부를 비롯하여 전자계산기교육부문들에 이용할 컴퓨터 (CPU 586급 60 MHz, RAM 32MB, HDD 540MB, CD-ROM Drive 4배속 모니터 15인치 칼라) 100대와 인쇄기 10대를 1998년 9월 10일까지 남포항에 도착시키도록 한다. 또한 평양방문시 상호합의에 따라 추후에도 컴퓨터와 현미경 등 교육기자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 경남대학교가 기증하는 컴퓨터는 교육용으로서 학생들의 정보화교육 및 순수한 학술활동에 사용한다.

넷째 : 조선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경남대학교 총장일행의 평양초청과 신변안전, 무사귀환 편의를 보장한다.

1998년 8월 25일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의 위임에 따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위임에 따라 아, 태평화위원회
김진구	참사 리성덕
경남대학 총장 박재규	총장 홍서헌
98.10.1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협력 의향서 교환 및 기자재 지원 합의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초청을 받아 1998년 9월 26일, 평양을 찾아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방문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경남대학교가 학술교류 의향서(MOU)에 서명했다.

중국, 소련에 이어 북한 대학들과도 학술 교류·연구의 문을 여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때는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방문 및 협력 관련 협의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해 각종 시설을 살펴보고, 경남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등 남북한의 대학들이 상호 교류 · 협력하는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간 교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 북한에서도 대화 · 교류할 분위기가 마련됐던 것으로 판단됐다.

▲ 김일성종합대학 박물관을 둘러보는 모습

▲ 김일성종합대학 이성철 부총장과 함께

▲ 리충복 참사(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가장 오른쪽)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해 대학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논의

방북 기간 중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북한 아태평화위 관계자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시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햇볕정책'이 흡수통일 전략이라고 의심했지만, 결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던 한반도의 냉전적 관계를 평화와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김대중 정부와 이른바 '큰 회담'(정상회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북한 아태평화위 관계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북한 연구자로서 북한과 미국이 1994년 합의한 「제네바 기본합의」에 관해 질문했더니 전력 200만kW를 생산하기 위한 경수로 건설 사업은 시작됐지만, 탄생할 수 없는 소위 '흰코끼리' 사업이라고 북측 관계자들이 얘기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북측 관계자들은 기다려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평양을 떠나기 전 열린 환송만찬에서 "큰 회담이 열리게 되면 자문위원으로 평양에 다시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김일성종합대학 정문 앞에서

평양 이모저모

북한 당국의 배려로 평양 시내뿐 아니라 묘향산 일대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니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삶을 비롯한 북한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 북한의 묘향산관광호텔 앞에서

▲ 북한의 영화촬영소를 둘러보며

▲ 북한 영화에서 '역도산' 역할을 했던 배우와 함께

▲ 묘향산에서 만난 평안북도 정주에서 소풍 온 소학생들

▲ 평양산원을 둘러보며

▲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동상 앞에서

▲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 단군릉 기념비 앞에서

▲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1999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특강

1997년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경남대 북한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리더십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1999년 4월 12일 특강했다. 특강에서 황 전 비서는 북한 권력 체제의 작동 원리 및 파워 엘리트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 경남대 북한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서 황장엽 전 비서를 초청해 특강

▲ 특강을 위해 마산을 방문한 황장엽 전 비서

▲ 황장엽 전 비서에게 초빙교수 임용장을 건네며

▲ 황장엽 전 비서와 대담

▲ 황장엽 전 비서와 함께 언론 인터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황 전 비서의 전문분야인 주체사상뿐만 아니라 김일성 ·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 이들과 장성택의 관계, 통일문제 등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 특히, 황 전 비서와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등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황장엽 전 비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대에서 특강 및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황 전 비서는 가장 많은 정보와 함께 생생한 북한 실상에 대해 많은 내용들을 소개해줬다. 교수 및 전문 연구자들에게 나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북한대학원은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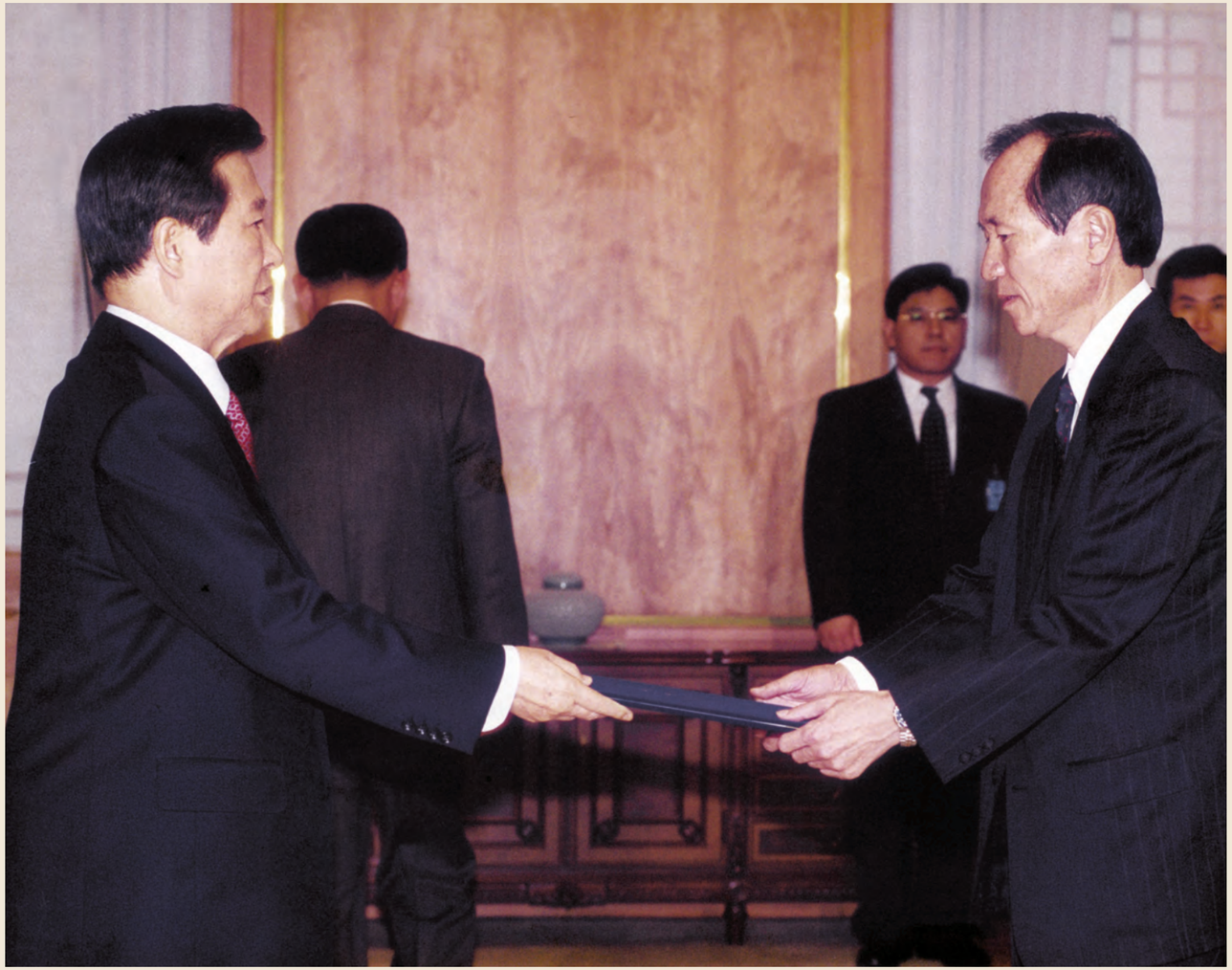
Ⅱ.

남북 화해·협력의 선봉에 나서다

1.제26대 통일부 장관 임명

30여년 북한 연구 및 교육 성과 바탕

1999년 12월 23일,
통일부 장관 내정 발표 이후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학자로서
북한과 통일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안보 문제,
동북아 평화 등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했으며,
국내외 북한연구의 토대 구축 등이
입각의 계기가 되었다.



▲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통일부 장관 임명장을 받는 모습

▲ 김대중 대통령 내외 등과 환담하는 모습

▲ 임명장을 받은 뒤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당시 아내는 평양에서 열린 MBC 음악회에 고문으로 참석하기 위해 방북 중이어서 함께하지 못했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아내는 북측 인사가 오찬장에서 통일부 장관 임명 사실을 알려주고 방북단 전체를 향해 축하하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될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남편이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소식을 전한 뒤에 북측 인사들이 아내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줬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북정책을 비롯한 통일·외교·안보 주요 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 · 외교 · 안보 등 다양한 정책 결정이 이뤄졌으며,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 NSC 상임위원회 참석자들과

▲ 통일부 장관으로서 NSC 상임위원회 주재

2000년 1월 5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은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한동 국무총리,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조성태 국방장관,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조영길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아서 대북정책 추진을 주도할 수 있게 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에 많은 비중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회의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대중 대통령과 박태준 · 이한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00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과의 준비접촉을 포함한 남북정상회담 전 과정을 총괄 조정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준비접촉 일시 및 장소, 대표단의 규모와 급, 협의방식 등을 북한측과 협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 김정길 법무장관과 협의

▲ 박지원 문화장관과 협의

▼ 박태준 국무총리(가운데)

▲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 진념 경제부총리와 협의

▲ 황원탁 외교안보수석과 협의

의회 활동

2000년 1월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했다.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중국이 탈북민 7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중국의 탈북자 송환 조치에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며 "해외 탈북자의 보호와 대북 조치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검토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남북 현안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후 국회 상임위 및 각 정당에 남북정상회담 준비 및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 · 협의가 수시로 진행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김정길 장관과 협의

▲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협의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 국회 상임위에서 남북관계 추진현황 보고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예방

한나라당이 대북포용정책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하고 있어 야당에 대해서도 주요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 협의했다.

▲ 서영훈 민주당 대표에게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

▲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모습

▲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보고

통일부 업무보고

2000년 2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0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 과정에서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산가족과 비료지원 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비해 만반의 회담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진전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모색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남북간 공존공영의 상호협력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업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비중을 두고 추진됐다.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듯이,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중점을 두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남북정상회담만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는 물론 북한을 변화시키는 등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 이것이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 김대중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주요정책 보고

▲ 양영식 통일부 차관(왼쪽), 이호 기획관리실장(가운데)과 협의

대북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받는 대북정책 수립에 골몰해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남북간 대화를 통해 이를 관철하고 구현하는 데 진력을 다했다.

▲ 대통령 주재 하에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일고문회의(김수환 추기경, 조영식 총장 등 참석)에서 대북정책 설명

▲ 한국발전연구회 조찬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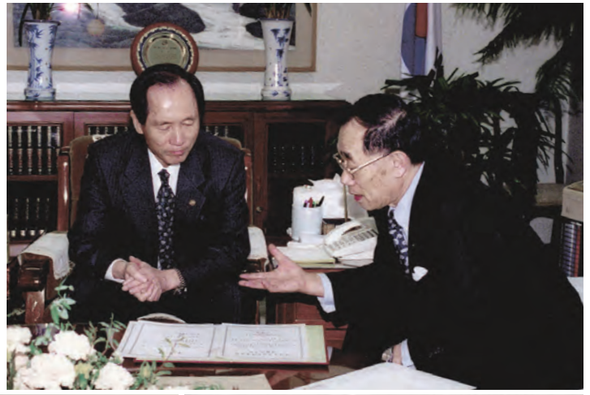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미와 평가를 각계각층에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여 각종 기관 · 단체를 방문, 설명하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갖고자 했다.

통일정책 입안 ·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지지 기반 없이는 정책의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상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등 소통이 매우 중요했다.

▲ 전직 통일부 장관 초청 간담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분야별 전문가, 학자, 기업인들의 워크샵, 건의 등을 종합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김진경 총장과 평양과기대 설립 추진과 승인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평양과기대는 2001년 6월 5일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 납북 어부 모친 면담

▲ 강원용 목사와 함께 통일고문회의에서

2. 최초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2000.6.13~15)

새로운 역사를위한 준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관해 설명했다. '베를린 선언'의 주요 내용은 남북당국자간 직접 대화와 협력,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 이산가족상봉 문제 적극 호응, 남북 특사교환 등 4개항이다. '베를린 선언'은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남북정상회담 과정에 '베를린 선언'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 박지원 장관과 함께 최초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2000.4.10)

▲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하는 모습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한 당국 특사가 처음 만났다.
지속적인 비공개 협의를 거쳐
남북 양측은
2000년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뒤 악수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2000년 4월 10일 오전 10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4층 대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도 같은 시간 '특별 중대방송'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및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2000.4.10, 통일부 4층 대회의실)

새로운 역사인
남북정상회담 준비

2000년 4월 14일, 통일부 장관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및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차질없이 성과있게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2000년 4월 20일,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서울 삼청동)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구성 및 회담 개최 · 운영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 통일부 차관이 단장을 맡아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논의하는 모습

▲ 남북정상회담 준비 접촉을 위해 출발하는 대표단 환송

▲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

▲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배경 등 설명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최고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분단사에 획기적인 일이었고, 또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장래 문제를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며, 남북간에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민족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또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냉전종식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치밀한 준비에 집중했다.

2000년 5월 30일,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첫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는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30명을 접견하고, 한 치의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선발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평양에 체류하며 대표단 체류 일정 협의, 의전 · 경호 · 통신 · 보도 등 분야별 세부 실무절차 협의 및 확정, 행사장 현장답사 및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2000년 6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13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북한에 통보했다. 수행원은 장 · 차관급의 공식 수행원 10명과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대기업 총수 등을 포함한 특별수행원 24명, 일반 수행원 96명으로 구성됐다. 수행원 명단과 함께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생생하게 취재 · 보도할 기자단 50명의 명단도 북한에 알려줬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분주했지만, 통일부 장관으로서 가장 많은 준비를 하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각계 원로 간담회

평화와 민족화해의 첫 길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0.6.13~15, 평양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함께 서울공항을 출발해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올랐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한이 대립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와 있었다.

남측 공식수행원의 한 사람이자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며 첫 대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다"고 말했다.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남측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김정일 위원장 바로 옆에 섰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박 선생, 오늘 첫 만남이지만 1998년에 평양을 다녀 간 것과 1999년 박 선생 부인이 다녀 간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환담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6월 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말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북측에서는 김용순 대남비서(통전부장)가 배석했다.

▲ 김대중 대통령 내외, 김정일 위원장과 기념촬영

▲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을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

▲ 서울공항 출발 시 대국민 인사하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출발에 앞서 한 대국민 인사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만난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세기 이상 대결로 일관해 오던 남과 북이 이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양 길이 평화와 화해에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 7천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냉전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한 첫 남북정상회담이 "정치,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방문이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재결합을 이루어 혈육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 6월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해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남측 대표단을 환대했다. 남북 대표단은 남북한 간 제반 문제와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측은 매우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우리 대표단을 대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겠는지를 반문했으며,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선언'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제의에 대해 한국은 평화통일을 원하고, 1972년의 「7.4 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를 지켜 나가는 방향에서 상호 협력하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예방하고 북한측 주요 인사들과 남북현안에 대해 논의

2000.6.14 만찬
평양 목란관

김정일 위원장 옆 자리에 앉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 「6.15 공동선언」 서명 전에 열린 이 만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특유의 '고집' 때문에 과거와 달리 「6.15 공동선언」에 직접 '수표'(서명)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 김정일 위원장과의 긴밀한 대화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했는지,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와서 "해상을 통해 관광을 했지만 큰 파도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며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남측 관광객들이 많이 불안해했다"고 얘기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이 육로관광과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만 해준다면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더니, 김 위원장이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선 육로 연결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 등을 마친 뒤 2003년 2월부터 육로관광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김정일 위원장과 많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의선 연결 문제, 북한 최대의 구리광산인 '혜산청년광산' 공동 개발 문제, 임권택 감독의 '축제' 같은 영화 공동제작문제('쉬리' 같은 영화는 김 위원장이 반대), 체육분야(축구, 농구, 태권도 등) 교류, 음악분야 교류 ·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대화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6.15 공동선언」 합의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발표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 인도적 문제 조속히 해결
-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제반 분야의 협력 · 교류 활성화
- 합의사항 이행 위한 남북 당국자간 회담 개최
- 김정일 위원장의 적절한 시기 서울 방문 등 합의

▲ 양측 최고당국자가 직접 「6.15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모습

「6.15 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 · 서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두 정상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서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은 ①분단 55년만의 첫 정상 간 만남 및 실천 합의 도출 ②남북 당사자 간 해결 의지 구현 ③남북간 화해 · 협력의 제도화 ④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⑤화해 · 협력정책 지속 추진 계기 등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하겠다.

▲ 「6.15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만족해하는 모습

2000.6.15 환송 오찬
백화원 영빈관

오전 일정으로 평양 인근의 '닭공장(양계장)'을 참관한 뒤 환송 오찬이 시작됐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15 공동선언」이 종이쪽이 되지 않도록 상호 비방, 특히 휴전선 인근에서 군대가 하는 비방 방송을 남북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만t 비료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남북한 간 직항로 개설 및 직통 전화 연결에 대해서 '연구'하자고 말했다. 전날 김대중 대통령이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적 이행을 강조한 사실을 의식한 듯,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대가 시작됐으니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언급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측 대표단의 환송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

▲ 환송 오찬

▲ 오찬 전에 조명록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대화하는 모습

▲ 김정일 위원장이 순안공항에서 환송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2000년 6월 16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위원장: 통일부 장관)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남북 당국 회담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광복절에 즈음한 이산가족의 친척 방문단 교환을 위한 선정 작업과 관련한 제반 준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 김수환 추기경, 강만길 교수, 장상 총장 등 사회 각계 원로들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2000년 6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외세배격 등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한 자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역설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과 3부 요인들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2000년 6월 16일, 전직 대통령 및 3부 요인들에게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7월 8일, 부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각종 단체, 연구기관 등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그 후속조치를 위한 제반 의견들을 수렴하는 일정을 지속했다.

남북정상회담 며칠 뒤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독 오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으로서 배석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 후 박태준 총리 등 3부 요인들과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함에 따라 이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2000년 7월 5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함께 '8.15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위한 후보인원 400명을 컴퓨터로 추첨했다.

2000년 8월 15~18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성과인 동시에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의 시발점으로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산가족 상봉 후보인원 컴퓨터 추첨식

▲ 이산가족을 위로하는 모습

▲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함께 이산가족을 격려

▲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차 서울을 방문한 류미영 북측 단장과 함께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2000년 8월 17일 환송 만찬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단의 류미영 단장에게 미확인된 인원까지 포함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고 당부했다.

▲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이 평양에 도착해 기념촬영

▲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에서 환송만찬을 주최하며 이산가족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 노모와의 상봉을 위해 방북을 준비하던 중 모친의 사망 소식을듣고 오열하는 이산가족을 위로하는 모습

▲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2000년 5월 7일, 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자문관이 방한해 면담했다. Sherman 자문관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및 남북정상회담, 북 · 미회담(2000.5.24) 등에 관한 한 · 미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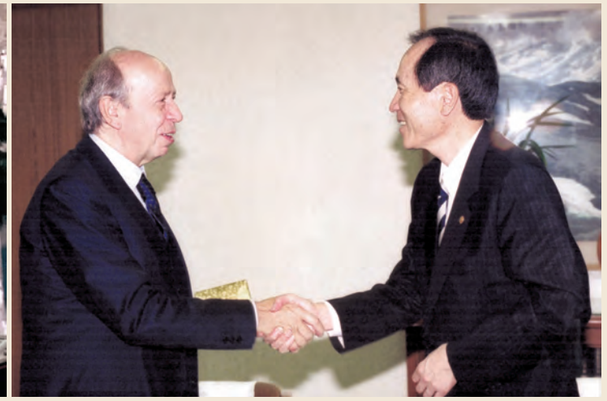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미국 등 주요국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남북관계 상황 변화와 함께 미 · 북회담도 진행되고 있어 양국 간 공조 논의가 더욱 필요했다.

▲ Wendy Sherman 미 국무부 대북정책자문관 예방(2000.5.7)

이러한 배경과 상황이 있어 Wendy Sherman 자문관 방한에 Charles Kartman 미 · 북회담 수석대표가 동행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미 · 북관계에도 상호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다. 또한 미 · 북관계의 변화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은 한 · 미간의 상호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었다. 지금도 남북문제가 국제화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 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협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 L. Hennekine 프랑스 외무차관 예방(2000.5.23)



▲ L. Dini 이탈리아 외무장관 예방(2000.10.5)

▲ John Kerr 영국 외무차관 일행 예방(2001.3.14)

▲ Phil Goff 뉴질랜드 외무장관 예방(2000.6.26)

▲ Stephen Bosworth 주한 미국대사 예방(2000.9.18)

▲ Charles Kartman 미 · 북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겸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

▲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 예방(2000.1.6)

▲ Evgeny V. Afanasiev 주한 러시아대사 예방(2000.1.21)

▲ 테라다 테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 예방(2000.3.10)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해 주변 4강(미 · 중 · 일 · 러) 대사와의 상시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4강 대사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대북정책 내용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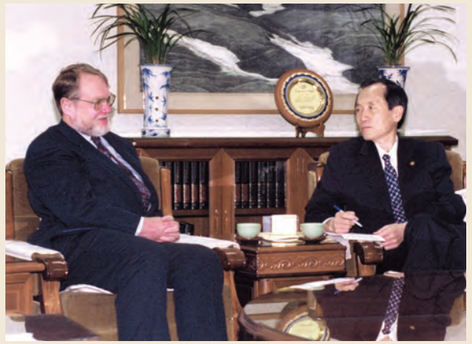
Kartman 특사는 자주 한국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관련된 한 · 미 간 의견을 조율했다. Kartman 특사는 만날 때마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 · 미 간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Kartman 특사는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사무총장도 역임해 북핵문제와 경수로 건설 상황 등의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 Henry Vries 주한 네덜란드대사 예방(2001.3.7)

▲ Carlo Trezza 주한 이탈리아대사 예방(2000.3.25)

▲ Lief Donde 주한 덴마크대사 예방(2000.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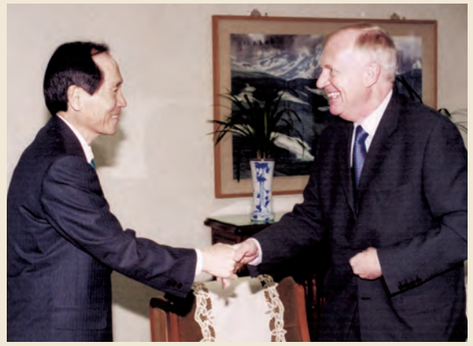


▲ Eric Pfister 주한 스위스대사 예방(2000.3.16)

▲ Stanly Roth 미 국무부 차관보가 예방(2000.1.15)해
한미 협력과 대북정책 공조에 관해 대화

▲ Arie Arazi 주한 이스라엘대사 예방(2000.2.9)

▲ Anthony John Hely 주한 호주대사 예방(2000.2.2)



▲ Koenraad Rouvroy 주한 벨기에대사 예방(2001.2.7)

▲ Derar 주한 이집트대사 예방(2000.4.4)

▲ Roy Ferguson 주한 뉴질랜드대사 예방(2000.3.6)

▲ Hubertus von Morr 주한 독일대사 예방(2000.10.12)

3. 남북관계 발전 위한 협상의 현장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7.29~31, 서울

2000년 7월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1차 남북장급회담을 위해 방한한 전금진 단장 등 북측 회담 대표단과 상견례를 갖고 환담했다. 7월 30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환담, 신임장 교환, 대표단 소개, 쌍방 기조발언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과제」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조치의 구체화, 쌍방 통일방안의 접점 확대방안 연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 교환, 면회소 설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조속 실현 문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우선적 실천과제'로 8.15를 기해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정상화, 8.15 민족화해주간 선포, 남북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운영, 경의선 연결 연내 착공,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 · 참가, 휴전선 일대 공동방역 실시 등을 제시했으며 정치 ·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 대표단, 김대중 대통령 예방과 삼성전자 시찰

2000년 7월 31일, 전금진 단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첫 남북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북한측 대표단을 만나고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공동선언 정신을 살려 후속 조치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민족이 단합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금진 북측 단장이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뒤 북측 대표단과 함께 삼성전자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을 참관했다.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당국 간 대화가 필요했다. 2000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4차례에 걸쳐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행 · 실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협의 · 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 ·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삼성전자 참관

▲ 삼성전자 참관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고건 서울시장 주최 만찬에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로 북측의 전금진 단장과 함께 참석했다. (▼) 만찬 참석 직전까지의 협의를 통해 남북한은 2000년 7월 31일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의 주요 내용은 ●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 2000년 광복절 계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 단절된 경의선 철도 연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협의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의 2000년 8월 29~31일 평양 개최 등이다. 특히,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문제가 논의돼 경의선 연결과 관련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처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7년 5월 경의선이 연결되는 시발점이 됐다.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친 뒤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금진 북측 단장과 악수하는 모습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북측 대표단을 환송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8.29~9.1 평양

2000년 8월 29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 우리측 전세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방북하는 첫 사례가 됐다. 판문점을 통한 육로 방북 또는 중국 베이징을 거쳐 방북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직항로를 통한 방북이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있는 변화였다.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에게 출발 인사

▼ 순안공항 도착 직후 평양 고려호텔로 이동해 전금진 북측 단장과 악수하는 모습

8월 30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확인한 상호 이해 · 신뢰의 정신을 계속 살려 남북공동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정치 · 경제 · 군사 ·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의제를 제안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까지 만나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 남북군사회담 개최 문제를 담판짓는 등 어느 회담보다도 성과를 거둔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양에 도착한 8월 29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홍성남 내각 총리 주최의 환영 만찬에 이어 량만길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주최하는 환송 만찬이 8월 30일 옥류관에서 열렸다. (◀) 이 자리에서 '서울 - 평양 축구대회'를 열도록 협의하면 좋겠다고 제의했더니 량만길 인민위원장이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시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영남 위원장 예방

2000년 8월 31일 낮 평양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남 위원장은 "9월 초 유엔 총회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과 다시 한 번 민족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대통령이 연로한 몸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이 공동선언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지난달 서울 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김 대통령을 예방한 전금진 단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양측은 장관급회담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했다. 양측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서명 · 합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북한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측 대표단에게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1차 남북장관급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측 대표단을 격려한 것에 대한 답례였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은 출발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관심과 의지가 돋보였던 회담이었다.

▲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재회

▲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예방한 우리측 대표단

▲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남북 현안에 대해 의견교환

김정일 위원장과 자강도 면담(2000.9.1)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북측의 김용순 노동당 대남비서로부터 긴급하게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오후 5시 이뤄진 긴급회동에서 김용순 비서는 '장군님(김정일 위원장)께서 다른 곳에서 현지지도 중'이라며 '그러나 수석대표 선생의 '왕고집' 때문에 장군님으로부터 만날 준비를 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열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측 수석대표가 요청한 '군 당국자 회담' 건에 대해 국방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평양역에서 2000년 8월 31일 밤 10시 30분에 목적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출발했다. 김용순 비서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만나고 싶은 분 계시는 곳"이라고만 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김용순 비서와 함께 밤을 새워 기차를 타고 김정일 위원장이 체류하고 있는 자강도로 이동했다.

▼ 자강도 특별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군사문제를 비롯한 남북 현안에 대해 집중 토의

2000년 9월 1일, 오전 7시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 자강도 특별초대소에 도착했다. 현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나를 만나지 못하면 안가겠다고 했다며..."라고 말하면서 우리 일행을 맞아줬다.

조찬을 겸한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남측 경제를 배우기 위해 10~15명의 당 간부로 구성된 시찰단을 남쪽에 보내겠다고 했다. 또한 김용순 비서를 특사로, 추석 선물(송이버섯 200상자)을 전달하기 위해 박재경 대장을 함께 남쪽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은 군부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가는 것으로 해 둡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을 요청하자 김정일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순 비서가 "통일부 장관이 대단한 왕고집"이라고 보고하자, 김정일 위원장은 '그 고집 때문에 다시 만나 얘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순 비서가 진짜 왕고집입니다"라고 응수하며 좋은 분위기를 유도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9월 유엔 총회 개막을 계기로 이뤄질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며 웃었다.
그리고 '군부가 군 당국자 회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설득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용순 비서도 '군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좀 더 설득해야 한다'고 가담했다. 이에 대해 "군부가 김 위원장님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양측 군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6.15 공동선언」의 진전이 어렵게 되며, 우리의 입장도 매우 난처해집니다"라는 취지로 진지하게 설명하면서 군사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자 김정일 위원장은 잠시 침묵한 뒤에 "박 선생 요청(국방장관회담) 대로 곧 준비하겠다"며 "군부의 반대는 내가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금년에 수십년만의 '왕가뭄'이 들어 식량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고, '6.15 정상회담 시 요청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이 계속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서울 - 평양 간 직항로 개설은 시기상조'라고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김용순 비서가 자세히 설명했다.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이후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협의가 급물살을 탔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 내용 발표(2000.9.1)>

-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 차관 형태의 식량지원 검토 · 추진
- 남북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조속한 시일 내 군사 당국자 회담(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협의
- 남북경협 확대 발전을 위한 투자보장 ·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9월중 실무접촉 개최
-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 - 개성 간 도로 개설 위한 실무접촉 9월중 개최해 착공식 문제 등 협의
- 조속한 시일 내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 추진
- 한라산 - 백두산 관광단 교환
- 제3차 장관급회담 개최는 2000.9.27~30 한라산에서 개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평양에서 열린 첫 번째 남북장관급회담이었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등을 모두 만나
남북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했던 회담이었다.

김용순 북한 대남비서 서울 방문 (2000.9.11~14)

▲ 북측 대표단과 기념촬영

2000년 9월 1일, 자강도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용순 대남비서를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언급한 지 10일 만인 9월 11일, 김용순 대남비서가 박재경 대장과 함께 추석선물(송이버섯 200상자)을 갖고 서울에 도착했다.

박재경 대장은 송이버섯을 전달한 뒤 즉시 돌아갔다. 우리측(박재규 통일부 장관, 임동원 국가정보원장)과 북측(김용순 대남비서, 임동옥 부부장)은 남북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공식회담을 열었다.

▲ 박재경 대장과 환담

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으로 이뤄진 공식회담에서 남북한은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 방문
- 이산가족 생사 · 주소 확인 작업을 9월 중에 시작해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교환 우선 추진
- 적십자회담을 2000년 9월 20일에 개최하여 위 문제들과 함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및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 운영 문제 협의
- 빠른 시일 내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 기공식 개최
- 북측 경제시찰단의 남측 파견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순 특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2000년 9월 14일 저녁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돌아갔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9.27~30, 제주

2000년 9월 27일,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전금진 북측 단장 등을 제주공항에서 맞이했다.
전 단장은 “백두에서 제주까지
통일무지개를 그리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또한 “어릴 때 최남단인 제주도에
한 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됐다”며
남다른 감회를 피력했다.
남북회담을 서울 · 평양만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한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금진 북측 단장과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앞서 환담

▲ 전금진 북측 단장 등 북측 대표단과 함께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금진 단장은 "6.15 공동선언은 북남관계를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놓은 일대경사였다"며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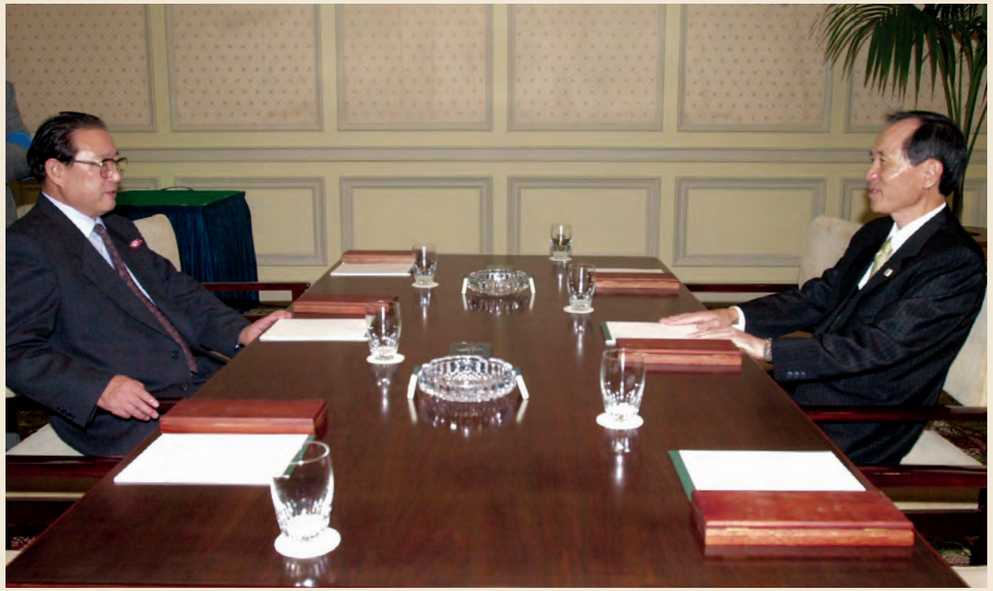
우리측은 2000년 9월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기조발언을 통해 그동안 남북국방장관회담,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경협실무접촉 개최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측은 당면 현안문제와 협력과제로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원장의 서울 방문 일정 논의
- 해외동포 고향방문
- 남북 학술 · 문화 교류의 지속 · 확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교수 · 대학생 · 문화계 인사 방문단 상호교환
-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 8.15 서울 · 평양 축구대회 정기 개최
- 남북직항로 개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북한측은 경협의 제도적 보장과 철도 · 도로 연결사업 추진, 경제시찰단 파견, 이산가족 및 사회 · 문화 · 체육 분야 교류 등을 제시했다.

▲ 남북 대표단, 회담장 입장 광경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전금진 북측 단장과 수석대표 단독 접촉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협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의 주요 내용은 ●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사업들을 계속 협의 · 추진 ●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2000년 말부터 생사 교환,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적극 협력 ●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 · 설치 ● 서울 · 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교수 · 대학생 · 문화계 인사 방문단의 시범적 상호교환 문제 등 교류 · 협력 문제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 · 결정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등이었다.

평화와 번영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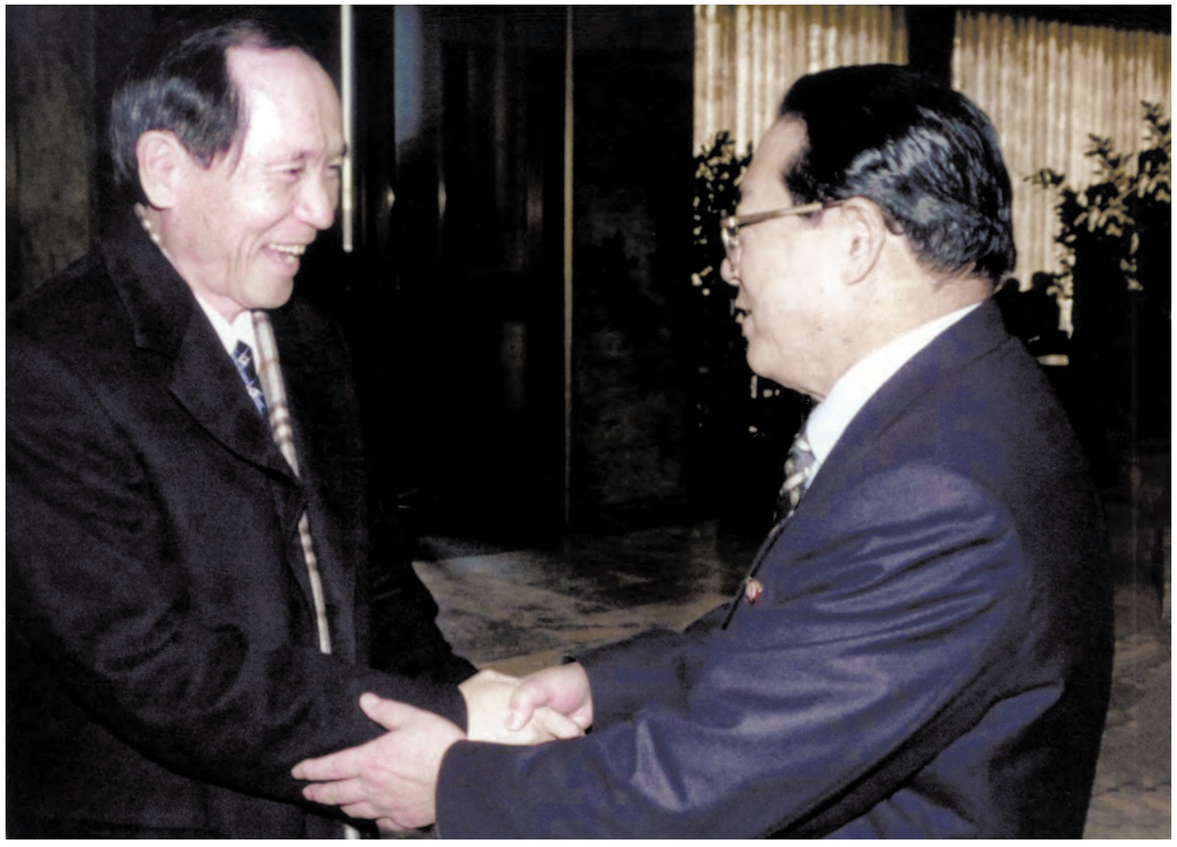
"2000년 9월 28일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남측 수석대표 박재규, 북측단장 전금진)은 한림공원을 관람하여 호평하고, 평화와 번영의 나무(비자 나무 10년생)를 심으셨습니다. 저희 한림공원 가족 모두는 온 겨레의 통일의 염원을 담아 이 나무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식수 기념 표지판 내용)

▲ 전금진 단장과 함께 통일의 염원을 담아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심었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12.12~16, 평양

2000년 12월 12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출발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담은 3차 때까지 논의를 리뷰하고 다시 수정·보완할 것이고,
내년(2001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발전적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평양에 도착해 전금진 북측 단장이 환영하는 모습

▲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한 뒤 양측 수석대표 환담에서 전금진 북측 단장에게 “남쪽 많은 분들은 전 단장이 하는 말과 실제는 다르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전 단장도 “남측 분들이 잘못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2000년 12월 13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본 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비방 등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의 훼손을 지적하고
- 취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미이행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01년 남북관계 발전구상으로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본격 추진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 개성공단 건설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본격 추진
- 문화·학술·체육·과학기술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
-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 진전 등을 제시했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첫 본 회의를 마치고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전금진 북측 단장 등과 함께 시범 연습을 관람했다. 전금진 단장 등과 함께 평양교예극장도 둘러봤다. 과거에는 3박 4일 회담 일정 가운데 이틀에 걸쳐 참관이 잡혀있었지만, 효율적인 회담을 위해 참관 일정을 대폭 줄였다.

2000년 12월 14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당면 협의 과제로

▼ 평양의 태권도전당을 방문해 손을 흔드는 모습

- 전력분야 협력문제
- 어업분야 협력문제
- 태권도의 선 협력, 후 통합 검토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전력지원을 포함한 여타 문제 등은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특히 전력지원 문제를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이는 제반 문제를 검토해 볼 때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환송만찬에 참석해 전금진 북측 단장과 건배했다.

환송만찬 다음 날(2000.12.15) 새벽까지 이어진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전금진 북측 단장은 "전력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박 선생은 귀환하지 못한다"며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압박했다. 협상 과정에서 수석대표 간 고성이 오가고 험악한 상황이 연출됐다.

우리측은 '차관급 경협추진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설득했지만, 북측이 '전력 지원 원칙'에 합의해 달라며 우리측을 계속 압박했고, 이에 우리측도 대표단 철수, 귀환을 위해 짐을 싸는 등 초강수를 뒀다. 결국,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력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0년 12월 16일, 평양 고려호텔 회담장에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교환했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 이 위원회에서 전력 협력, 철도 ·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사업 추진문제 등 협의
- 남북 어업부문 상호협력 추진
- 이산가족 생사 · 주소 확인 사업과 서신교환 사업 시범 실시
- 2001년 상반기에 북한의 경제시찰단 파견
-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 이른바 '4대 경협합의서'를 각기 발효 절차를 거쳐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간 경제 교류 · 협력에 있어 기본이 되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과 관련한 4대 경협합의서를 마련했다. 또한 '경추위' 구성 · 운영, 개성공단 건설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2007.6)까지 논의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며, 남북관계 진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초석이 됐다.

▲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

▼ 순안공항에 환송나온 소녀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모습

‘화살과 꽃다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단상

회담이나 협상은 다분히 심리전을 동반할 때가 많다. 상대의 전략에 따라 일종의 무기 없는 ‘전투’가 되기도 한다. 사고의 전투이며 ‘말씨름’이기도 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남북장관급회담은 냉전시대와 달리 ‘아름다운 대화론’을 지향했지만 이것이 아직 정착되지는 못했다. 미소 뒤에 가려진 날카롭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상대의 말을 받아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말씨름’으로 허비한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개선 전략을 추구하지만 실천은 항상 쌍방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다.

연일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돌연 남쪽 신문을 손에 들고 북측의 두 인사가 예고 없이 나를 방문한 적이 있다.

“수석대표 선생과 OOO 선생 모두 개각 대상이니 어떻게 된 겁니까?”

냉소도 위로도 아닌 뉘앙스로 몇 겹의 심리전을 펼쳤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 목은 이미 여러 번 붙었다 떨어졌다 했으니... 내 임무가 끝날 날까지는 내 소신껏 내 권한대로 할테니 걱정할 일이 아니오. 내가 알기로 OOO 선생은 대북관계를 위해 바뀌는 일이 없을꺼요.”

당 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설’들을 낱낱이 알려야하는 언론의 보도 임무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대의 지역으로 회담에 나간 대표에게 ‘후방의 지원’이 이러할진데, 회담 당사자의 기분이 유쾌할리 없고 또한 회담 상대방도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뒤돌아볼 사이 없는 대표의 등 뒤로 후방에서 날아온 화살이었다.

회담이 길어야 그저 며칠 걸리는 것이니 흔들고 싶은 사람들의 심술궂은 ‘설’들을 잠시 묻어두었다가 대표가 귀국한 후에 보도해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리라.

몇 차례의 회담을 치른 경험자로서 다음 주자를 위해서도 아니 회담 결과에 미칠 국익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앞으로의 회담은 물론 고도의 전략과 기술, 그리고 화해와 협력 시대에 걸맞는 대화로 발전해야 한다. 시대에 역행하지 않으며 현대적 감각에 맞는 언어로, 사고와 언어를 양면으로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담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심리전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려면 후방에서 회담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회담 대표에게는 어떠한 역경도 감수해야 할 자세가 요구되지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외교와 협상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예의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공동보도문’을 산출하고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이뤄냈다는 생각으로 자위하면서 후회는 없었다.

며칠을 함께 고생한 회담팀을 인솔하고,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우리 때문에 춥고 불편하게 대기했던 승무원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을 때에는 참으로 평화로웠다.

기자들이 기분을 물어 ‘천국’이라고 답했다. 평양에서 직항로를 이용해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행운도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였다.

항공기 출입문이 열리고 대표단이 나서는데 항공사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꽃다발로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환영’이었다. 가슴 속으로 감동의 강물이 흐르고 그 동안의 피로가 순간 씻은 듯 사라졌다. 늦도록 기다려준 분들과 그 동안 지켜봐 준 국민 모두께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2000년 12월 20일

통일부를 떠나며

통일부 재직 시 너무 분주했지만 의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간에 수많은 대화와
다방면의 교류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무척 행복했다.
또 다시 이러한 시기와 남북관계가 오기를 기원한다.

▲ 이한동 국무총리 등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2001년도 정부 시무식 참석

▲ 통일부 실 · 국장 부부동반 간담회

▲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함께

▲ 통일부를 떠나며 배웅 나온 직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Ⅲ.

남북 교류 및 민간 외교 활동에 전념하다

남북 교향악단 합동연주:

KBS 교향악단 평양방문(2002.9.16~22)

2002년 9월 16일, 평양공연을 위한 KBS 교향악단 및 취재단과 함께 고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며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전금진 전 북측 단장이 공항에 마중나와 반갑게 환영해줬다.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카운터파트였던 전금진 전 북측 단장은 평양 도착시부터 평양을 떠날 때까지 함께 했다. 사진은 2002년 9월 17일 대동강변을 전 단장과 함께 산책하며 그 동안의 미운정, 고운정을 얘기하다가 촬영한 것이다.

▲ 전금진 전 북측 단장,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함께 2002년 9월 17일 기념촬영을 했다.
전 단장과 리 부위원장에게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KBS 교향악단 평양공연의 남북 동시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2000년 8.15 계기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서울행사에 북측단장으로 참석했던 류미영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을 2002년 9월 18일 만나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 1998년 방북 시, 2002년 방한 시 만났던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을 2002년 9월 18일에 다시 만나 경남대와 김책공대 사이의 학술 교류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 당시 북한의 대남정책 관련 책임자인 김용순 대남비서,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을 2002년 9월 20일 별도로 만나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용순 비서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특별 열차편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것에 대해 회고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KBS 인터뷰와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홍성규 KBS 특임본부장을 포함한 간부들과 교향악단 관계자들을 격려

고문으로서의 역할은 홍성규 KBS 특임본부장이 요청한 ①KBS 교향악단 공연(2002.9.20)과 남북 교향악단 합동 연주회(2002.9.21)의 생방송 문제 ②당시 국회의 관심사항이었던 남북 국회회담 개최 문제 ③김정일 위원장의 KBS 인터뷰 문제 ④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크게 4가지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방북 다음 날부터 전금진 당시 내각 참사,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김용순 대남비서 등을 만났다.

만나는 북측 인사들에게 '음악교류와 체육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강조했는데, 이번 남북 교향악단 합동연주회는 생방송으로 중계해야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에 '수표'(서명)하기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통일을 위해 앞으로 국회회담도 가끔 개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KBS음악회에 김태식 국회 부의장, 배기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니 남북 국회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되던 남북한 간 화해 · 협력 관계가 북핵문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때에 김정일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를 KBS TV와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린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청들에 대해 북한측 인사들은 '생방송 중계 문제는 위에 보고하고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방송되기 하루 전에 공식적으로 생방송하는 방안이 전격 결정됐다. 또한 국회회담과 김정일 위원장의 KBS 인터뷰는 남북 합동공연 후 여유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답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북측과 김정일 위원장의 KBS 인터뷰 문제를 계속 협의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 평양 봉화극장에서 진행된 남북한 교향악단 합동 공연

홍성규 당시 KBS 특임본부장은 "남북한 합동 공연의 동시 생방송은 남북관계 역사상 최초의 '전파를 통한 통일'로 그 의미가 매우 컸다"며 "이는 박재규 26대 통일부 장관께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의 · 설득해주신 결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북측 인사들, '통일관' 개관식(2004.6.15) 참석 ⇨ 북한대학원대학교 승격(2004.11)

2004년 6월 15일, 서울 삼청동에서 경남대 북한대학원 통일관을 개관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북측에서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 등이 참석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축사

▲ 인사말 하는 경남대 총장

▲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축사

▲ 손주환 통일관 건립 추진위원장께 공로패 수여

▲ 김대중 대통령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

▲ 김대중 대통령과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의 반가운 인사

▲ 축하케이크를 자르는 조순 전 서울시장,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박권상 전 KBS사장, 강영훈 전 국무총리(왼쪽부터)

▼ 평화통일 연구와 교육에 앞장선 한 가족

▲ 통일관 건립기 앞에서 리종혁 부위원장과 함께

▲ 통일관 개관식 후 리종혁 부위원장 일행, 이종환 회장, 박정민 교수와 함께

▲ 리종혁 부위원장, 원동연 실장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진들이 함께

북한대학원 통일관 개관식에 참석했던 리종혁 부위원장과 이전부터 논의하던 남북한 간 학술 교류 · 협력에 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2006년 6월 29일 경남대와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사이의 합의서 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 리종혁 부위원장, 원동연 실장과 환담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2005.6.14~17, 평양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했다. 2005년 6월 17일에는 우리측 정부 대표단과 김정일 위원장의 오찬이 있었다. 그 날 오전 11시 45분에 대동강 영빈관에 도착해 오찬이 시작됐다. 김정일 위원장은 오찬을 겸한 면담 자리에서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위한 '화상 상봉'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2001년 남측이 제안했던 사안이었다. 김 위원장은 "재규 선생!, 인터뷰 기사 잘 읽었다"며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할 것이라는 설명은 매우 좋았고, 나의 생각과 꼭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

면담 자리에서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은 "상급회담은 '쌈질'보다는 협력하는 마음의 대화"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며 "그러나 전금진 북측 단장과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가리켜 '피그미'라고 조롱한 것을 지적하는 듯, "미국이 우리 민족끼리 가까워지는 것을 안좋아 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양품 사용하고 양요리를 먹고 하니, '양놈'이라고 부르는 언어는 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우리측 정부 대표단 일행과 함께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중인 2000년 9월 1일 자강도 면담과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은 "재규 선생, 2000년도에 내가 자강도 시찰 중에 긴 시간 열차를 타게 만들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때 남북 간에 합의하지 못했던 남북국방장관회담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해결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원조회를 왜 하는지를 물으며 '북측으로 튈까 싶어서 하는가? 만약 튀면 모두 잡아서 남측으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농담조로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경제적 보상을 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기남 비서 등과 함께

▲ 전금진 전 북측단장, 김완수 조국통일전선 의장과 함께

◀ 김영남 상임위원장,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인사

▲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 백문길 아태평화위 참사와 함께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과 인사

러시아에서 출판되고, 한국에서 번역된 『김정일과 왈츠를』이라는 책을 봤는지 김정일 위원장에게 묻자 김 위원장은 "저자인 올가 기자와 인터뷰한 러시아판은 나왔지만, 조선어판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학래 한겨레신문 고문이 "한국어 번역판은 박 장관의 아드님이 번역했다"고 말해 이목이 쏠렸다.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올가 기자에게 왈츠춤을 함께 추자고 청했다던데'라며 사실인지 질문하자 김정일 위원장은 '올가 기자가 춤을 청해와서 췄다'고 대답했다.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와 대축전 행사 참석 방북을 계기로 북한측과 협의를 통해 북한측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반 조치들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체됐던 남북관계가 10개월여 만에 정상화됐다. 특히, 핵문제 해결이 중대 국면에 놓여있는 시기에 이뤄진 남북간의 합의는 남북 상호 신뢰 증진과 남북관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됐다.

▲ 6.15 통일대축전 일환으로 개최된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남북 당국 공동행사에 참석한 남북 대표단

▼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함께

동북아대학총장협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6.5.23, 개성공단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 대학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대학총장협회를 결성했다.

동북아대학총장협회와 경남대 공동 주최로 2006년 5월 22~23일 서울에서 '동북아 공동체 구축과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특히, 23일 개성공단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북한의 대학을 대표해서 참석해 오찬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리종혁 부위원장과 다시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학술교류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 국제심포지엄 제2부 회의에서 발표 · 토론하는 모습

▲ 발표 · 토론을 경청하는 참석자들

▲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석자들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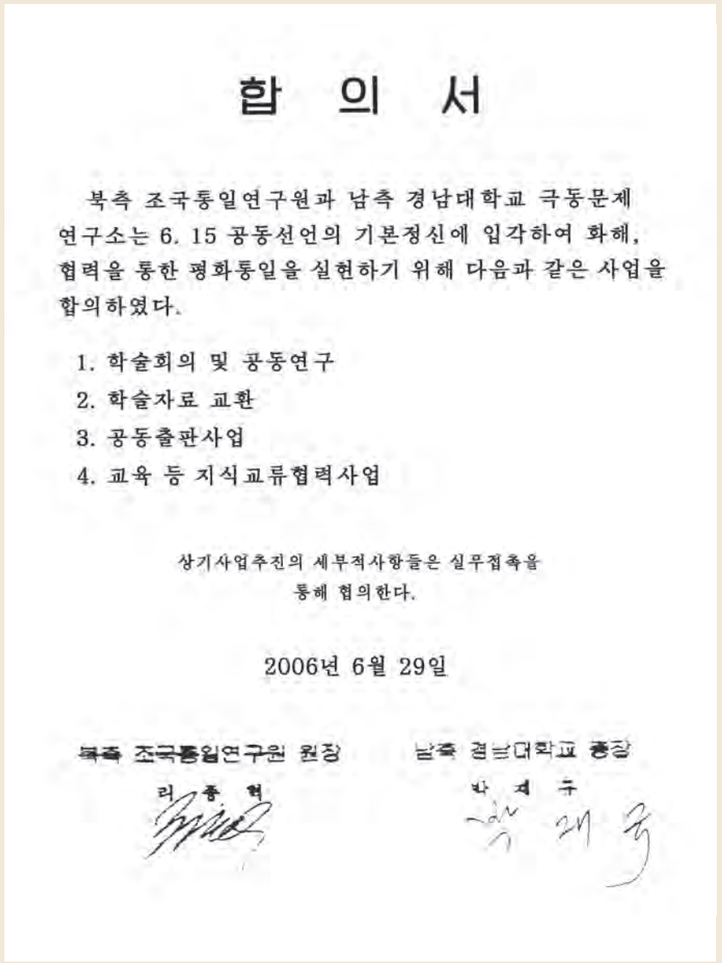
▲ 리종혁 부위원장과 개성 봉동관에서 오찬 중 대화

▲ 리종혁 부위원장과 인사하는 Malcolm Sturchio 미국 F.D.U. 학장

동북아에 있는 수십개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 남북 상생의 현장인 개성공단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은 여러모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직접 개성까지 내려와 동북아대학총장협회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등 북한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 리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제심포지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2006년 5월 23일 개성에서 열린 동북아대학총장협회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과 경남대 사이의
학술 교류 · 협력 합의서 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양측이 합의서 내용을 협의했으며,
2006년 6월 29일 합의서를 교환할 수 있었다.



합 의 서

북측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측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는 6. 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의하였다.

1.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2. 학술자료 교환
3. 공동출판사업
4. 교육 등 지식교류협력사업

상기사업추진의 세부적사항들은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한다.

2006년 6월 29일

북측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리 종 혁

남측 경남대학교 총장 박 제 주

◀ 경남대와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사이의 학술 교류 · 협력 합의서

동북아대학총장협회의 회장 학교인 러시아 극동국립대학교에서 동북아대학총장협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 러시아 극동국립대학교에서 개최한 동북아대학총장협회 운영위원회 참석자들과 함께

- 1차 총회는 2006년 5월 22~23일 동북아대학총장협회와 경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 주제는 '동북아 공동체 구축과 대학의 역할'이다.
- 회의 1부는 서울에서, 2부는 개성공단(북한)에서 개최하며, 2부 회의는 북한측에서 준비한다.

동북아대학총장협회의 부회장 학교인 일본 동북대학에서 동북아대학총장협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 서울 · 개성에서 열린 동북아대학총장협회 총회는 매우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였다.
- 다음 운영위원회는 몽골에서 준비한다.
- 대만에서 명전대학과 공동으로 세계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한다.

▲ 일본 동북대학에서 동북아대학총장협회 운영위원회를 마친 뒤 모리 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윤이상평화재단 평양음악회(2006.10.18~21)

작곡가 윤이상 선생은 동백림 사건 이후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남북한 문화교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상징성이 큰 인물인 윤이상 선생의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윤이상평화재단을 창립키로 하고, 2005년 2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다.

▲ 윤이상 평화재단 창립 멤버들과 함께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으로서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열리는 윤이상음악회(2006.10.18.~21) 참석 차 방북했다. 방북을 준비하던 기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해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랭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평양음악회에서 지휘를 맡기로 했던 정명훈 지휘자는 평양음악회 참가를 포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윤이상평화재단 대표들은 북한의 초청과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 2006년 10월 17일 평양에서 열리는 윤이상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북측 대표는 '핵개발이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역사적 결단인데, 왜 남측이 소란한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핵실험은 1994년 북 · 미 「제네바 기본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도, 우리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음악회와 별도로 협의 사항이 있으니 김정일 위원장을 대리할 만한 인사와의 면담을 북측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측에서는 "기다려달라"며 "'장군님'(김정일 위원장)께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2006년 10월 20일 오전, 고려호텔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약속 시간에 대리인으로 나온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만나자 마자 "의원 단장으로 유럽연합(EU)을 순방 중이었는데, 왜 긴급 귀국 하게 만듭니까? … 내가 안왔으면 나를 얼마나 들볶았을런지…"라고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노무현 정부와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물으니 '서울 답방은 적절치 않고, 협의 시간 부족과 핵실험으로 정상회담 생각은 접었다'고 답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평화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야 하고, 남측 정부와 정상회담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종혁 부위원장은 다음날 "장군님이 '박 선생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전하라 하셨다"고 했다.

▲ 구삼열 사장, 주진구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왼쪽부터) 등과 함께

▲ 한승주 전 외교장관(왼쪽), 윤이상 선생의 부인인 이수자 여사와 함께

서울음악회(2007.11.3)

윤이상 선생 탄생 90주년을 맞아 2007년 9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07 윤이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 주최로 열린 '2007 윤이상음악회'는 윤이상 선생의 탄생일(9월 17일)과 타개일(11월 3일)에 맞춰 '제1회 국제 윤이상 음악상' 시상, '서울 윤이상 앙상블 공연', TIMF 앙상블 연주, 윤이상의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 한국 초연, 국악과 윤이상의 만남, 타개 12주기 추모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 윤이상 선생의 부인인 이수자 여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기념촬영

▲ 이수자 여사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인 송기인 신부(가장 오른쪽), 정원 변호사(가장 왼쪽)와 함께 기념촬영

'2007 윤이상페스티벌'을 계기로 40년만에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한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여사는 2007년 9월 11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자 여사는 "이번 방문은 윤이상 선생의 방문이기도 하다"며 남편인 윤이상 선생의 영혼도 자신과 함께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는 "꿈 같았던 고향 방문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면서 남편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이상 선생은 민족의 아들로 부끄럼없이 살고 조국의 이름을 널리 알린 분이며 전체 작품이 150곡에 달하는 그의 예술에는 고향의 정신과 철학이 반영돼있다"며 "그가 남긴 문화 유산을 갈고닦아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도록 해달라. 그게 민족의 아들로 산 불행한 예술가에 대한 예우이고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방문 기간 이수자 여사는 딸 윤정씨와 함께 비공개로 청와대를 예방해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기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이 여사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노 대통령에게 '큰 절'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특강

2007.11.27,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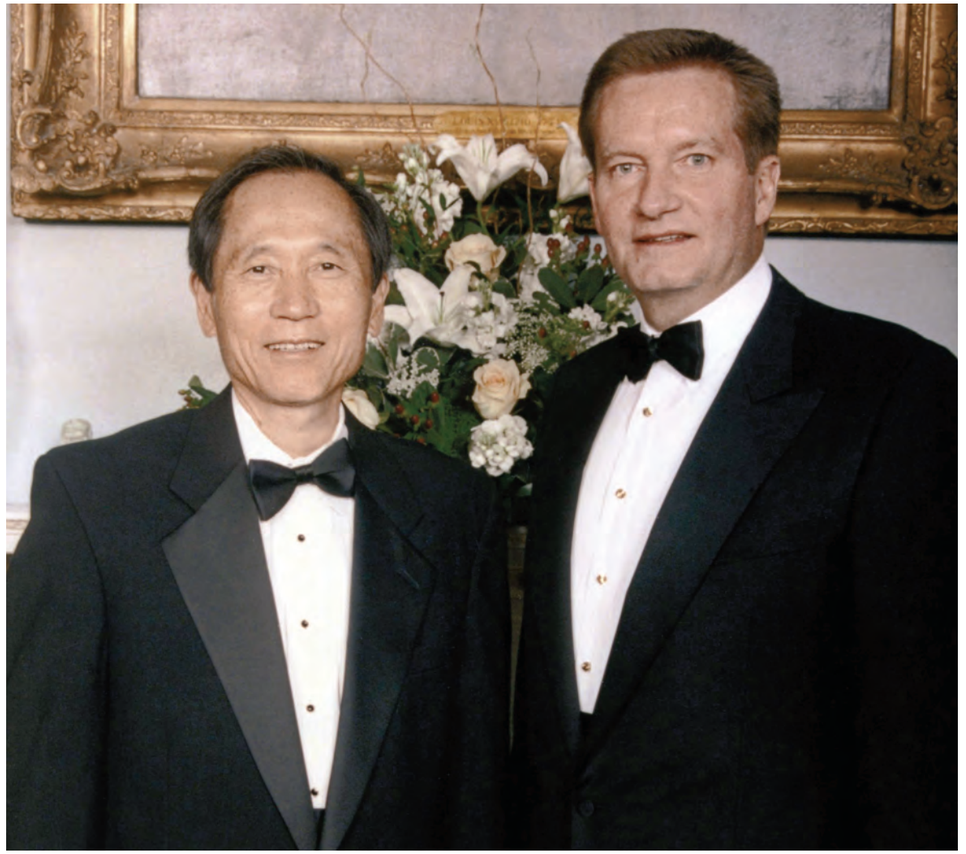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27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방문해 '한반도와 동북아: 대전환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했다.

▲ 특강에는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이한동 국무총리, 장상 전 총장, 전 장관들, 교수들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미국 F.D.U. 글로벌 언더스탠딩상(2001.6.1)

2001년 6월 1일 미국 페어레이 디킨스 대학에서 수여하는 '글로벌 언더스탠딩 상'을 받았다. F.D.U.는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공동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류사회에서 협력과 화합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공헌한 인사에게 '글로벌 언더스탠딩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북한연구 외길을 걸으며, 특히 통일부 장관에 재임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 및 동북아 평화구축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F.D.U.는 시상 이유를 설명했다.

▲ 시상식에서 감사인사 하는 모습



▲ 공동수상자인 Jim Fassel과 함께

Jae Kyu Park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Award for Global Understanding Hono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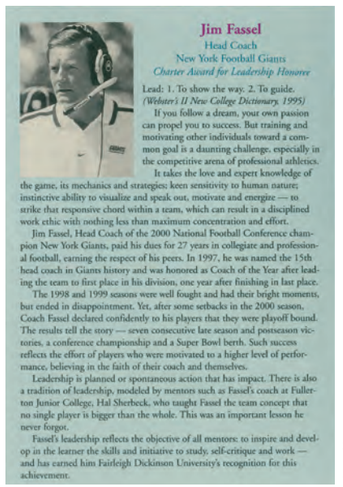
Raised in the southern Kyungsang province of what is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Jae Kyu Park's distinguished career has spanned the fields of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 and security, education and military history.

In 1999, Park was appointed the Minister of Unific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With his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and global relations, his appointment to the position came as no surprise. He also was given the further responsibility of chairing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His participation in world politics has been most instrumental in what some conceive as the finest achievement in world peace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South-North Korea Summit of June 15, 2000. During this momentous event, Park chaired the summit's Organizing Committee and continued to play a major role in both the post-summit and ministerial level talks as the head of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hrough the spring of 2001.

Respected as a leading authority on education in Korea, Park has served as Kyungnam University President and Director of its renowned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n addition, he served as Chairman of the Korean President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1996–97) and President of the Korean University Presidents Association (1997–99).

Park is a prolific author of many books and articles.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Cold War and U.S. Foreign Policy Toward Asia* and, most recently, *New Diplomacy of North Korea and Its Survival Strategy*.

Park began his exploration of political science as a student on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s Rutherford Campus, earning a bachelor's degree in 1967. This quest led him through a lifelong inquiry into the diverse development and often volatile meandering of human societies. He earned a master's degree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diplomas at the University of Exeter in England and the New School University in New York,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Kyung Hee University and an honorary LLD from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He also was honored by FDU as a recipient of The PINNACLE for lifetime achievement.



Jim Fassel
Head Coach
New York Football Giants
Charter Award for Leadership Honoree

Lead: 1. To show the way. 2. To guide.
(Webster's II New College Dictionary, 1995)

If you follow a dream, your own passion can propel you to success. But training and motivating other individuals toward a common goal is a daunting challenge, especially in the competitive arena of professional athletics.

It takes the love and expert knowledge of the game, its mechanics and strategies; keen sensitivity to human nature; instinctive ability to visualize and speak out, motivate and energize — to strike that responsive chord within a team, which can result in a disciplined work ethic with nothing less than maximum concentration and effort.

Jim Fassel, Head Coach of the 2000 National Football Conference champion New York Giants, paid his dues for 27 years in collegiate and professional football, earning the respect of his peers. In 1997, he was named the 15th head coach in Giants history and was honored as Coach of the Year after leading the team to first place in his division, one year after finishing in last place.

The 1998 and 1999 seasons were well fought and had their bright moments, but ended in disappointment. Yet, after some setbacks in the 2000 season, Coach Fassel declared confidently to his players that they were playoff bound. The results tell the story — seven consecutive late season and postseason victories, a conference championship and a Super Bowl berth. Such success reflects the effort of players who were motivated to a higher level of performance, believing in the faith of their coach and themselves.

Leadership is planned or spontaneous action that has impact. There is also a tradition of leadership, modeled by mentors such as Fassel's coach at Fullerton Junior College, Hal Sherbeck, who taught Fassel the team concept that no single player is bigger than the whole. This was an important lesson he never forgot.

Fassel's leadership reflects the objective of all mentors: to inspire and develop in the learner the skills and initiative to study, self-critique and work — and has earned him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s recognition for this achievement.

▲ 트로피를 들고 부인과 함께 기념촬영

◀ 공동수상자인 Jim Fassel은 New York Football Giants에서 1997~2003년 감독을 지냈다. 감독 부임 첫 해인 1997년에는 꼴찌팀이었던 New York Football Giants를 일약 지구 우승으로 이끌어 그 해에 AP 통신이 선정한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Tiger Woods와의 평화로운 라운딩(2004.11.13)

'골프황제' Tiger Woods와 함께 제주 라온GC에서 2004년 11월 13일 열린 'MBC 라온건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대회'에 초청받았다. 이날 라운딩에는 손천수 라온건설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구본홍 MBC보도본부장, Colin Montgomerie(스코틀랜드), 최경주, 박세리 선수 등이 함께 했다.

▲ 골프황제 Tiger Woods와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재단 이사장

아마추어들이 프로 선수들과 함께 하는 프로암대회에는 일반적으로 골프협회 등과 관련된 대기업 CEO 등이 초청받는다. 이 대회는 Tiger Woods가 참여할뿐만 아니라 상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경남대 총장으로,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것이 나름 인정받아 대회에 특별초청 받았다.

▲ 필드를 걸으며 공놀이 하는 Tiger Woods

▲ Tiger Woods가 그린에 올린 공을 박 총장이 'Eagle(이글)' 퍼팅 후 즐거워하는 모습

그날, 스크램볼 게임에서 Woods가 그린에 올린 공이 깃대에서 거리가 좀 멀었지만 내가 홀에 넣어 'Eagle'을 완성시키는 행운을 누렸다. 텔레비전에 볼거리도 되었다. Woods가 골프를 언제부터 했냐고 내게 물어 "아마 당신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유쾌하게 웃었다. 참으로 내겐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었다.

▲ 퍼팅 라인을 숙의하는 모습

시라크재단 분쟁방지 특별상 (프랑스판 평화상)

2009.11.6,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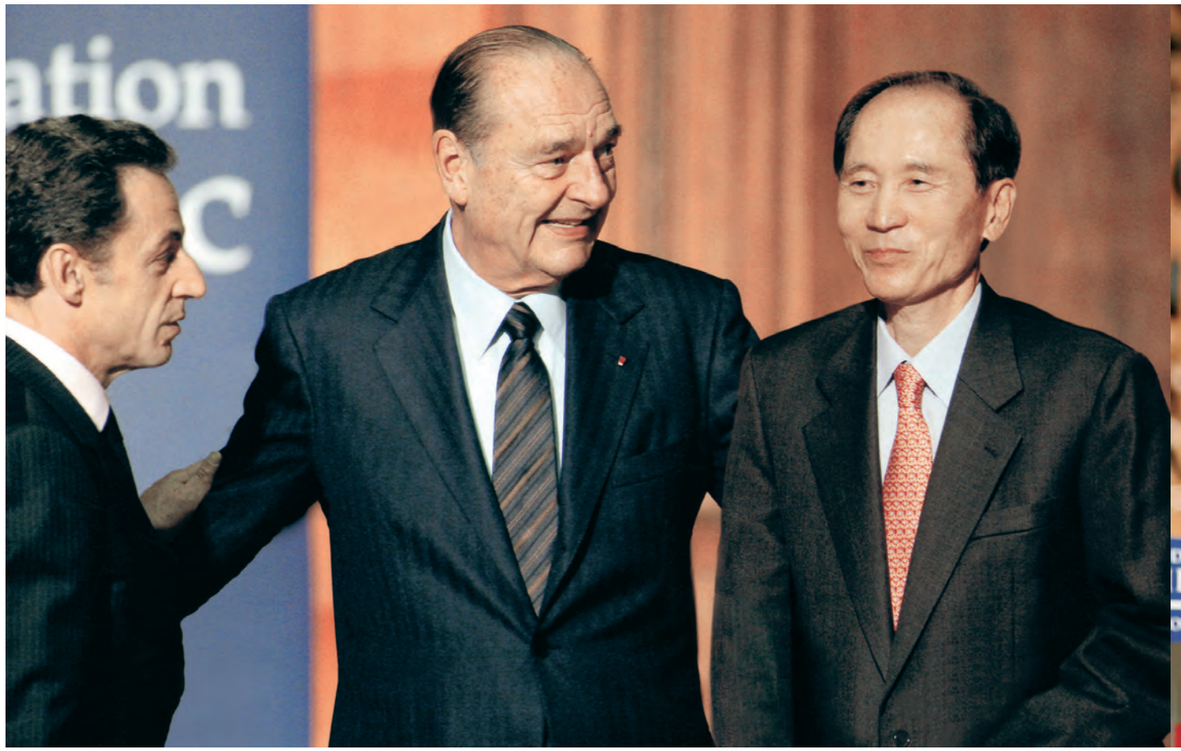
2009년 11월 6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시라크재단이 수여하는 분쟁방지 특별상을 수상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설립(1972)과 경남대 북한대학원 개원(1998)을 통해 북한 및 한반도 통일 관련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 화해 · 협력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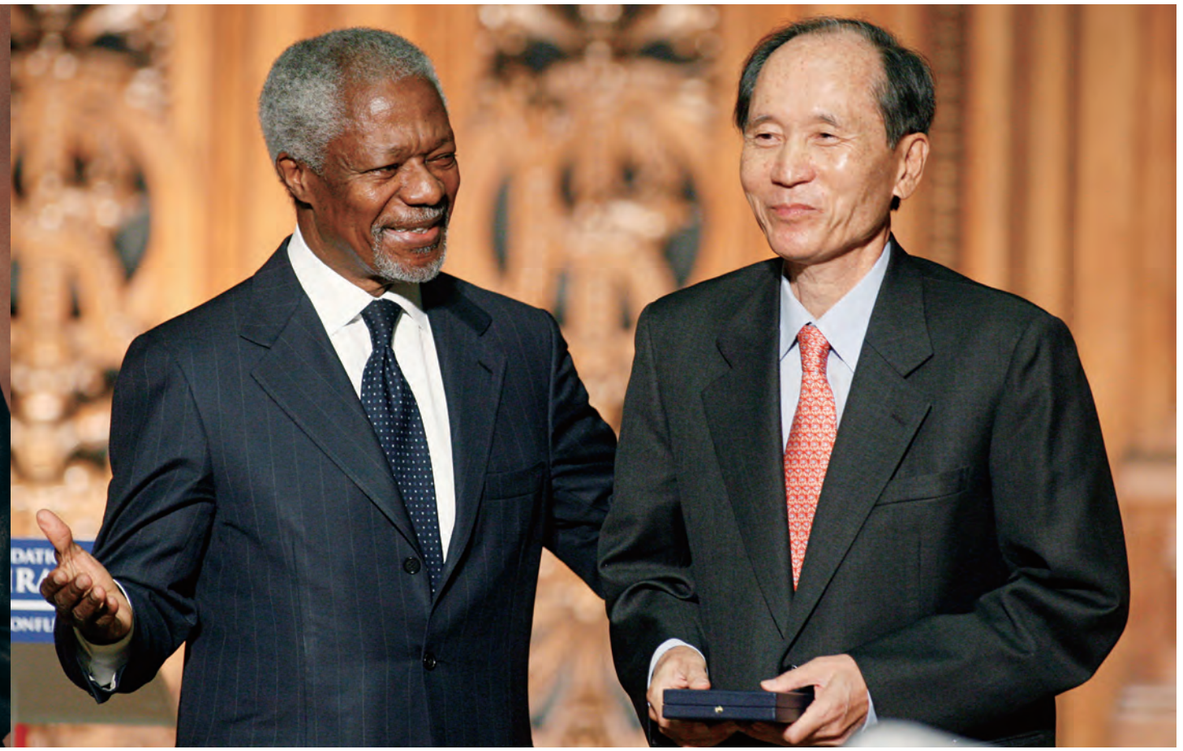
▲ 수상 소감 연설

▲ 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 축하 연설

▲ Jacques René Chirac 프랑스 대통령 연설

▲ Michel Camdessus 전 IMF 총재 축하 연설


▲ Chirac 전 대통령과 Sarkozy 대통령이 축하하는 모습


▲ 심사위원장이었던 Kofi Annan UN 사무총장이 소개하는 모습

▲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Sarkozy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 Chirac 프랑스 대통령과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이 함께

▲ Camdessus 전 IMF 총재와 함께

▲ Kofi Annan UN 사무총장과 수상자 부인(김선향 이사장)이 함께

▲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 Camdessus 전 IMF 총재,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의 이승유 공보관 등과 함께

▲ 개선문 일대 파리 시내 백 여 곳에 수상 사실을 알리는
대형 포스터가 전시

시라크재단은 Jacques Chirac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08년 문명간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존중 및 빈곤퇴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시라크재단은 특히 분쟁 예방, 의료 및 보건시설 제공, 산림벌채와 사막화 방지, 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라크재단은 재단 설립 다음해인 2009년 처음으로 분쟁방지상을 제정 · 시상했는데, 분쟁방지상은 심사위원특별상과 시라크재단상 2가지로 이뤄져있으며, 제1회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것이다.

심사위원특별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전 UN 사무총장인 Kofi Annan, Boutros Boutros-Ghali, 전 IMF 총재인 Michel Camdussus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실무작업을 위해 분쟁방지 및 평화증진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분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위기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의 분쟁방지 또는 해결에 헌신한 인사를 추천한다. 추천과 선정 과정은 당사자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하며, 최종결과만 선정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상의 신뢰성과 가치를 높이고 있다.

2009년 시라크재단상은 나이지리아 카두나시(市)에서 '모슬렘과 기독교 중재센터'를 공동으로 이끌었던 James Wuye 목사와 Mohammed Ashafa 이맘(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이 선정돼 함께 수상식을 가졌다.

▲ Georges Tsai 유엔대학 부총장과 함께

▲ 축사하는 Sarkozy 대통령

▲ 시라크재단상을 공동 수상한 나이지리아의 J. Wuye 목사, M. Ashafa 이맘과 함께

▲ 조일환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 이건수 회장 부부와 함께

▼ 시상식 전경

Michael Adams 세계대학총장협회(IAUP) 회장은 시라크재단 분쟁방지 특별상 수상 축하 메시지에서 '박재규 총장은 Pioneer, Peace Builder'라고 축하했다.

▲ 프랑스 유명 주간지인 Le Journal du Dimanche에서 시상식을 보도

▼프랑스 유명 일간지인 Le Figaro에서 시상식을 보도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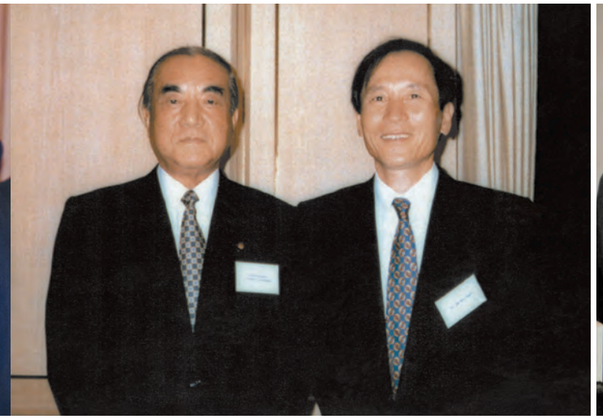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위한 민간외교 지속하다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

해외 정상 및 통일 · 외교 · 안보 분야

▲ Mikhail Gorbachev 소련 대통령과 함께

▲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일본 총리와 함께

▲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와 함께

▲ 중국 주룽지(朱鎔基) 총리와 함께

▲ 중국 부총리와 함께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 함께

▲ 간 나오토(管直人) 일본 총리와 함께

▲ 천수이벤(陳水扁) 대만 총통과 함께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과 함께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함께

▲탁신(Thaksin) 태국 수상, 이대순 총장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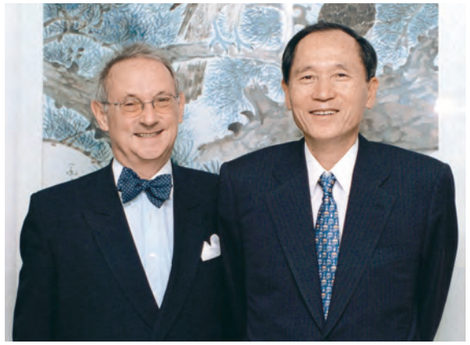
▲Arnoldo Aleman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SGI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이케다 히로마사(池田博正) SGI 부회장이 대리수령)

▲훈센(洪森)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캄보디아 방문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키지 못했다.

▲ Elisabeth Laurin 주한 프랑스대사와 함께

▲ 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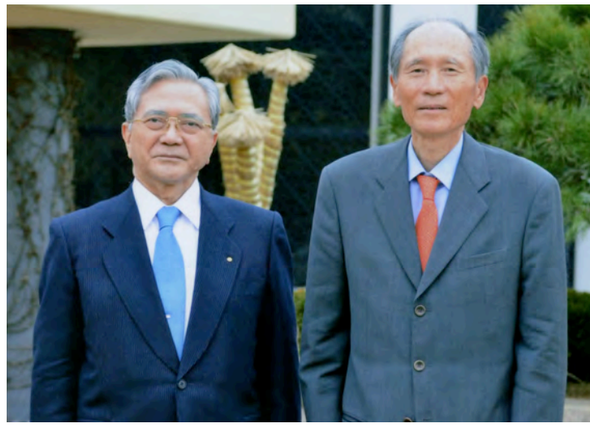
▲ Lief Donde 주한 덴마크대사와 함께

▲ 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대사와 함께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 관방장관과 함께

▲ Norbert Bass 주한 독일대사와 함께

▲ 石定 주한 대만대사(오른쪽)와 함께



▲ Harada Minoru 일본 창가학회 회장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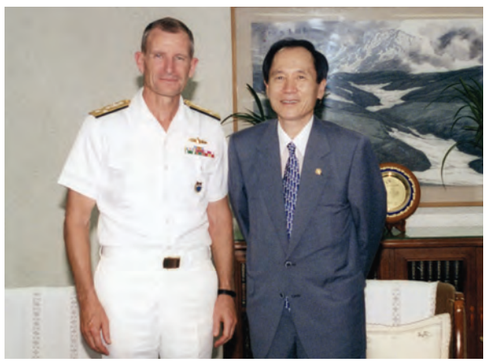
▲ 주평양 독일대사와 함께

▲ David Slinn 주평양 영국대사와 함께

▲ István TORZSA 주한 헝가리대사와 함께

▲ Peter Rowe 주한 호주대사와 함께

▲ 전 세계 신문에 150여개 기명 칼럼을 갖고 있는 Jack Anderson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와 상호 오가며
북한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 Dennis Blair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함께

▲ Jean Celsi 프랑스 합참의장과 함께

▲ Johnnie E. Wilson 대장과 함께

▲ Burwell B. Bell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 Robert L. Gallucci 미국 Johns Hopkins대 한미연구소 소장(전 미국 북핵특사), 박정민 북한대학원대 교수와 함께

▲ 커원저(柯文哲) 타이페이 시장과 함께

▲ 오오기 치카게(扇千景) 일본 전 참의원 의장께 명예박사학위 수여

▲ Jane Harman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원장,
Bill Richardson 전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함께

▲ 중국, 독일 IOC위원들께 명예박사학위 수여

▲ 유자키 히데히코(湯崎英彦) 일본 히로시마현 지사와 함께

▲ John B. Fetter 미국 FSI 회장과 함께

▲ Enrique Bolanos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명예교수 증서를 수여

한 · 일의원연맹 추천으로 그 동안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오오기 치카게(扇千景) 일본 전 참의원 의장에게 2007년 11월 20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오오기 전 의장에게 "경남대 가족으로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Reinhard Wagner IPMA 회장과 함께

Carlos Slim 텔맥스텔레콤 회장, Olegario Vazquez Rana 세계사격연맹 회장 (IOC 위원)과 함께

197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부 자문위원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고 있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국도 일본처럼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 일하던 한기욱 박사를 통해 전달됐다. 당시 Rana 회장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 1978년 서울에서 열린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시상하는 모습

▲ 1978년 서울에서 열린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시상 후 메달을 걸고 기념촬영

다행스럽게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박정희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준비가 시작됐다. 1979년 갑작스러운 정변이 발생해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여기에도 Rana 회장의 도움이 매우 컸다. 서울올림픽 유치 후에도 Rana 회장과 Jack Anderson 워싱턴포스트(WP) 칼럼리스트는 1984년 미국 LA올림픽처럼 반쪽이 아니라 하나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2012년 4월 4일, 창원시와 경남대의 초청으로 당시 세계 제1의 갑부였던 Carlos Slim 텔맥스텔레콤 회장, Olegario V. Rana 세계사격연맹 회장(IOC 위원)이 가족과 함께 창원을 방문해 오랜만에 해후했다.

▲ 삼형제(왼쪽부터 첫째, 둘째, 셋째를 하기로 했다)가 손을 잡고 경남대 캠퍼스를 둘러보는 모습(2012.4.5)

Rana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Rana 회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데 IOC 위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줬다. 특히,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1978, 서울)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큰 공로로 2012년 4월 5일 경남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 Rana 회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Slim 회장 등 멕시코의 세계적인 CEO들과 함께

▲Slim 회장과 박정진 경남대 교수를 소개하는 모습

▲ 한국사격역사관 개관식(Opening Ceremony)

Rana 회장, Slim 회장과는 '삼형제'로 불린다.
Rana 회장이 2012년 4월 5일 경남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날
창원시(박완수 시장)가 준비한 창원종합사격장 내
'한국사격역사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두 분과 함께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주경기장으로 이용될 창원종합사격장 내에서 클레이사격 시범을 하기도 했다.

Olegario Vazquez Rana 회장, Carlos Slim 회장과 계속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2018.9, 창원)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 Rana 회장, Slim 회장, 박승억 사장 등과 함께

Rana 회장과 Slim 회장은 출국 전날 서울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초청 환송만찬에 참가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의 학술 교류·협력

▲ 2010년 1월 29일, 경남대학교 · 우드로윌슨센터 제1회 워싱턴포럼을 마치고 선준영(전 UN주재 한국대사,) 우드로윌슨센터의 Robert S. Litwak 부원장, Christian Ostermann 박사, 한덕수(주미 한국대사), James Steinberg 미 국무부 부장관, Lee H. Hamilton 우드로윌슨센터 원장, Robert Hathaway 박사, James Person 연구원 등과 함께(왼쪽부터)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005년 미국의 사회과학 분야 최고 연방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당시 원장 Lee. H. Hamilton)와 한반도의 평화 · 통일에 대한 공동 학술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우드로윌슨센터는 1968년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을 통해 미국의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돼 역사, 정치, 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간 60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다.

그동안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한 학술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그 수준도 학계에서 높이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의 기밀문서 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문서들을 발굴해 세계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사 연구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냉전기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을 초청해 학자들과 비교 · 토의한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비판적 구술사 회의(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도 중요한 공동연구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워싱턴에서의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미국 정 · 관계에 더욱 잘 알리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남대학교 ·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워싱턴포럼을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한미관계 등 굵직한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토론하며 워싱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2010년 제1회 워싱턴포럼에서 기조연설

▲ 2010년 제1회 워싱턴포럼에서 질의 · 응답하는 모습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우드로윌슨센터에 Jane Harman 원장이 취임한 2011년 2월 이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Harman 원장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출신 정치인으로 9선의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국가 안보 및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국 조야에 높은 명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011년 7월 우드로윌슨센터와 기존 학술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학술협력사업 유지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러한 협력을 토대로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015년 한반도국제포럼(KGF) 미국회의 개최 등 우드로윌슨센터와의 각종 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2013년 제4차 워싱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 2013년 제4차 워싱턴포럼에 앞서 Jane Harman 원장과 함께

▲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 개최한 2015년 한반도국제포럼(KGF) 미국회의에 앞서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 Jane Harman 원장, James Person 박사, Dean Ouellett 경남대 교수와 함께

▲ 2012년 4월 경남대를 방문한 Harman 원장으로부터 "**도전과 논쟁의 순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최고의 척도이다**"라는 Martin L. King 목사의 유명한 어록이 담긴 기념품을 전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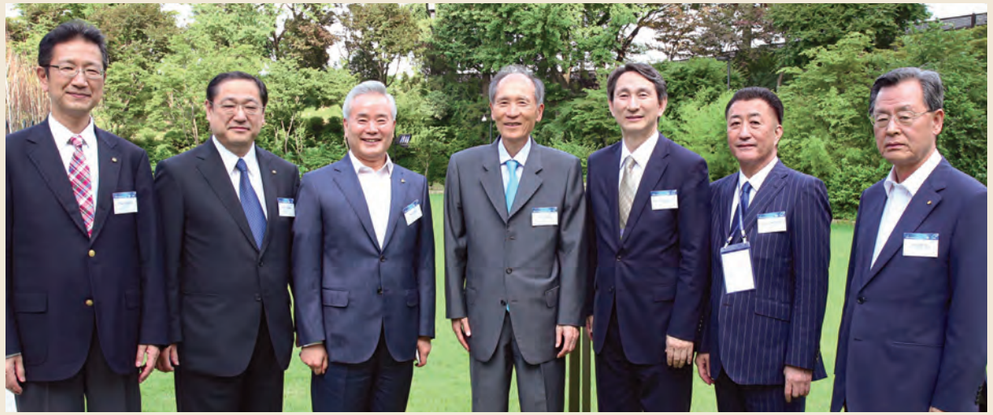
Korea Global Forum
한반도국제포럼 개최

분단 70년인 2015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통일부와 공동으로 '한반도국제포럼(KGF)'을 개최했다. '분단 70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5 한반도국제포럼은 서울회의와 미국(워싱턴)회의, 유럽(벨기에 브뤼셀)회의로 이뤄졌다. 2015 한반도국제포럼은 분단 70년을 맞은 한반도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 2015 한반도국제포럼 서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 2015 한반도국제포럼 서울회의에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 2015 한반도국제포럼 서울회의 개회식



▲ 2015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한 일본 SGI(창가학회), 소카대학, 한국 SGI 등 대표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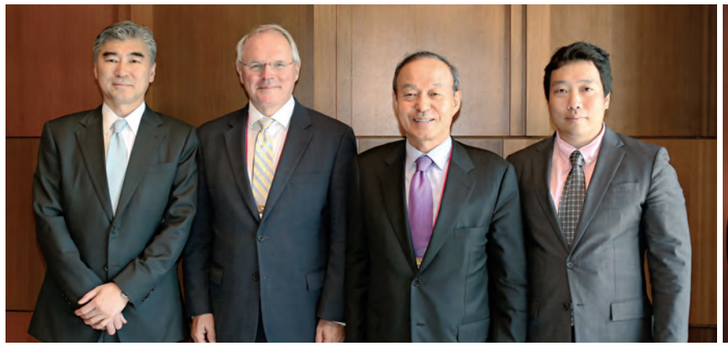
▲ 2015 한반도국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는 나경원 의원

▲ 2015 한반도국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는 황진하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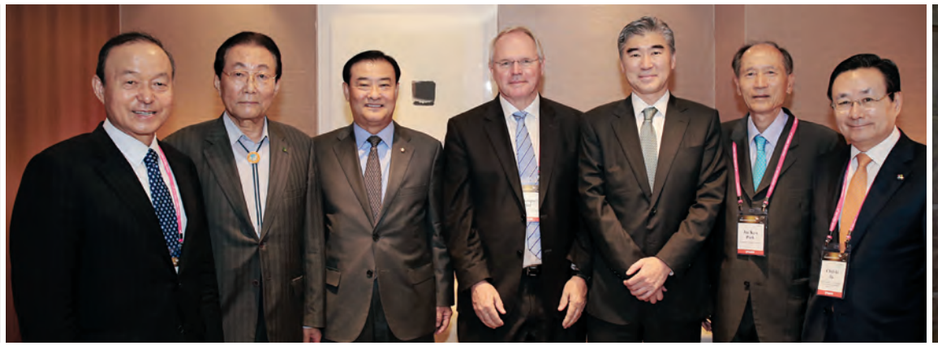
▲ 2015 한반도국제포럼 서울회의에서 천해성 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현재 통일부 차관), 이수훈 경남대 교수, Ruediger Frank 비엔나대 교수 등이 토론하는 모습(왼쪽부터)

▲ 2015 한반도국제포럼 서울회의 비공개회의 참가자들이 발표 · 토론하는 모습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2015 한반도국제포럼 서울회의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 Sung Kim 주한 미국대사, Christopher R. Hill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송민순 총장, 박정진 경남대 교수 등



▲ 송민순 총장, 고건 전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왼쪽부터)

▲ 주철기 수석, Sung Kim 대사, Hill 전 수석대표(오른쪽부터)

▲ 정의화 국회의장, 이윤석 의원과 함께

사진으로 본 지난 세월

경남대학교 부설
통한문제연구소 설립
1972

북한 문제
국내 첫 국제학술회의 개최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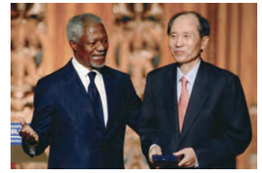
수교 이전 중국 방문
1986

데라우치 문고 반환
1996

냉전체제 해체와 마르크시즘
1989

북한 방문: 남북 학술 교류 선도
1998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0



시라크 분쟁방지 특별상 수상
2009

미국 F.D.U. 글로벌
언더스탠딩 상 수상
200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2017

1970's

1973
미국에서 첫 한반도 문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0's

1984
국제적으로 학술 교류 다각화

1989
수교 이전 소련 방문

1992
탈냉전과 한반도 국제회의

하버드대와 공동 국제회의

1990's

1998
경남대 북한대학원 개원

2000's

1999
제26대 통일부 장관 임명

2000.8.15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

2004
6.15 통일관 개관 및
북한대학원대 승격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2015
한반도국제포럼(KGF) 개최

2017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협력' 제안
요시노 마사요시(吉野正芳) 부흥장관,
미도리가와 히로시(綠川浩司) 동일본국제대 이사장

제작일 2017년 8월 15일
발행일 초판 1쇄 2017년 8월 15일
발행처 경남대학교출판부
발행인 박재규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
전화 02)3700-0700
팩스 02)3700-0707
ISBN 978-89-8421-395-1